


2020년
청년인정 기획연구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년인정 

제 출 문

수 신 : 무중력시대 도봉 귀하

이 보고서를 청년정거장 3기 [청년 작은연구SHIFT]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청년인정협동조합

□ 연구원 : 김태환, 김나은, 성보경, 안혜림

목 차

I	들어가며	
	1. 연구배경	7
	2. 연구목적	8
	3. 청년 작은연구SHIFT 소개	8
	4. 연구원 소개	8
II	용어정의	
	1. 코로나19	10
	2. 도봉구 청년	10
	3. 경제적 문제	10
	4. 심리적 문제	10
	5. 커뮤니티	11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3
	2. 설문조사	13
	3. 집단인터뷰	13
IV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6
	2. 집단인터뷰(FGI) 결과	
	2.1. 경제적 문제	32
	2.2. 심리적 문제	42
	2.3. 커뮤니티	53

V	결론	
	1. 결론	68
	2. 제안	69
	3. 연구의 한계	70

VI	부록	
	1. 참고자료	72
	2. 설문조사지	73
	3. 집단인터뷰(FGI) 질문지	77

I. 들어가며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청년 작은연구SHIFT 소개
4. 연구원 소개

1. 연구배경

-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부정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의 여러 지표들이 위기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1조1885억으로 2월 7819억 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¹⁾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가파른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5세~29세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만1000명 감소했고, 30~39세 가입자는 5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뒤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일하지 않는 청년층(15~29살)이 166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만 명은 그냥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들의 현금 서비스 이용률과 연체율은 3월부터 늘어나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현금 서비스를 쓰고 있고,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교류 활동이 중단되면서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코로나 블루(Corona-Blue)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이 붕괴되면서 겪게 되는 생존의 문제와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 두려운 심리 상태가 지속된다. 또한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집단 감염 사례 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는 정신건강 진단을 요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비해 국민의 우울과 불안감은 증가했지만 정상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 질병이 아닌 사회현상에 따른 심리적 증상이다.
-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 쿠바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⁴⁾ 쿠바에서는 한 마을 단위로 이웃의 건강과 생활을 확인하는 '빠스끼사(Pesquisa)'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 집마다 일일이 방문하여 그 날의 건강과 상황을 물어보고 확인하여 병원에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코로나 자가알림 앱과 같지만, IT기구나 온라인 툴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빠스끼사를 통해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마을 사람들의 건강 단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주기도 한다.
- 이처럼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이웃 간의 커뮤니티가 코로나19 극복에 정말로 큰 도움이

1)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또 최대...'청년'들은 읍니다", 머니투데이, 2020.08.10.

2) "코로나궤 고용 한파 현실화, '일자리 보릿고개'에 허덕이는 청년들", 한국대학신문, 2020.08.03.

3) "코로나 습격에 쓰러지는 청년들...희망 위기가 온다", 프레시안, 2020.07.01.

4) "쿠바의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 0m'의 쾌거..."이웃간 볼키스를 멈추세요", 프레시안, 2020.08.10.

될까? 전신현(2003)에 따르면 강한 지역유대감이나 결속력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커뮤니티의 형성 조건인 유대감과 결속력이 강할수록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에서도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을까? 도봉구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얼마만큼 겪고 있으며, 실제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있을까? 만약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을까?

2. 연구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도봉구 청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한다.
- 도봉구 청년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도봉구 청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한다.

3. 청년 작은연구SHIFT 소개

- 청년인정협동조합의 작은 연구 프로젝트.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고, '나'와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였다.
- 'SHIFT'는 연구 활동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4. 연구원 소개

- 김태환 : 도봉구 거점의 청년단체 '청년인정'에서 활동하는 연구활동가. 세상 모든 청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길 바란다.
- 김나은 : 많이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 성보경 : 마침표를 자꾸 빼먹는 쉼표의 사람.
- 안혜림 :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때 만들어진 별명을 바꾸어 스스로 <햇님> 이라 이름 지었다. 성인으로서 독립하고자 발버둥 치는 중이나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한 시대임을, 세대임을 깨닫고 착잡해 하는 중. 모두가 테스형을 외칠 때 여성 철학자를 찾아 외치고 싶으나 학부 시절 여성 철학자에 대해 배운 적이 없음에 입이 쓴 상태. 그래도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이라, 바꿀 수 있다는 초미세먼지만한 희망과 농담곰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

II. 용어정의

1. 코로나19
2. 도봉구 청년
3. 경제적 문제
4. 심리적 문제
5. 커뮤니티

1. 코로나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줄임말로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의미한다.⁵⁾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또는 '코로나'로 짧게 줄여 표기하였다.

2. 도봉구 청년

1) 도봉구

- 서울특별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구(區)로 서쪽으로 강북구, 동쪽으로 노원구와 인접해있다.

2) 청년

- 사전적 정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0)에 의하면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년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년 여자를 포함하여 용어를 사용한다.
- 법률·자치법규상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법규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청년의 나이를 설정한다. 그러나 2020년 2월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중인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경제적 문제

- 청년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는 크게 직업, 소비 등이 있다. 직업 부분에서는 취업의 어려움, 실직, 수입의 감소, 고용 불안정성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업, 실직, 수입 감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개인 재정의 변화로 정의한다.

4. 심리적 문제

-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활동 자제, 비대면 소통 등으로 인한 심리적 또는 심적 변화로 정의한다.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코로나 블루(corona-blue)'라는 신

5) 대한민국 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사이트 (<http://ncov.mohw.go.kr/>)

조어가 만들어졌다.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 질병보다 사회현상에 따른 심리 증상에 유사하다.

5. 커뮤니티

- 커뮤니티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정의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Hillery(1955)의 정의이다. Hillery는 그의 연구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한다. ① 지리적 영역 ② 사회적 상호작용 ③ 공동의 유대 또는 연대이다. 이에 따라 Hillery는 커뮤니티를 '어떤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한 가지 이상의 공동의 유대를 가진다'고 정리한다.
- 본 연구에서는 IT 기기 사용과 온라인 접속을 통한 사회적 연결에 익숙한 청년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Hillery의 커뮤니티 형성 조건 중 ① 가상의 영역을 추가하고자 한다. 또한 취미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 청년 세대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③ 공동의 관심사를 추가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를 '어떤 지리적 또는 가상의 영역 안에서 공동의 관심사 또는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설문조사
3. 집단인터뷰(FGI)

1. 연구대상

- 본 연구는 도봉구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 도봉구 청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도봉구에서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한다.
- 통상적으로 청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실거주하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청년의 삶을 반영하여 지역 청년의 범위를 활동, 수학, 노동하는 청년까지 연구 대상으로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2.1. 설문조사지 구성

- 설문조사지는 크게 4개 범주(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커뮤니티,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분류하였다. 연구원이 각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로 작성한 후, 논의를 거쳐 문항으로 작성할 부분을 정리했다.
- 경제적 문제 부분은 다시 3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일자리 또는 정기적인 수입 변화 부분이다.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 최근 6개월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소비 부분이다.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비의 감소 규모와 감소 항목을 파악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 부분이다.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개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했다.
- 심리적 문제 부분은 코로나와 정신건강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주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실태 부분에서는 ①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② 불안 ③ 우울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각 부분의 세부 문항 중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문항을 채택하여 연구 대상과 범위에 맞게 변형하였다.
- 커뮤니티 부분은 3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①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존재 유무 ②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③ 도움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세분화하여 문항을 설계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 종류는 전통적 방식의 커뮤니티 위주로 작성하였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본 연구의 커뮤니티 정의에 적합하게 그 종류를 설정하였다.

3. 집단인터뷰(FGI)

3.1. 인터뷰 질문지 구성

- 인터뷰 질문지는 설문조사지 구성을 바탕으로 총 6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 6개 범주(인트로, 코로나,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커뮤니티, 마무리)를 세분화하여 총 16개 범주로 다시 분류하였다.
- 또한 연구원 각자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수정을 거

쳐 16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세부 질문을 구성하였다.

3.2. 인터뷰 참여자 선정

- 인터뷰 참여자는 설문조사지 문항 중 '연구 FGI(집단인터뷰) 참여를 희망하시나요?'에 '네'로 응답한 40명의 참여자 중 처음 20명으로 별도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 이후 후보자 명단에서 가구형태와 성별을 기준으로 총 5개 그룹을 구성하였다. 우선 2가지 요인으로 구성한 이유는 첫째, 가구형태에 따라 코로나블루에 해당하는 심리적 문제(외로움, 우울함, 무기력감, 분노 등) 문제가 나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고 둘째, 성별에 따라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커뮤니티 이용 방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 크게 5개 그룹을 먼저 분류한 후 출생연도, 거주형태, 월 평균 개인소득을 감안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이 각 그룹에 고르게 분포하게끔 명단을 작성하였다.

3.3. 인터뷰 참여자 명단

번호	이름	성별	출생연도	가구형태	월 평균 개인소득
1	참여자A	여성	1992	1인 독립가구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2	참여자B	여성	1994	1인 독립가구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3	참여자C	여성	1995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400만 원 이상
4	참여자D	남성	1992	1인 독립가구	없음
5	참여자E	남성	1984	1인 독립가구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6	참여자F	남성	1989	2인 이상 동거가구	1원 이상 50만 원 미만
7	참여자G	여성	1988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100만원 이상 150만 원 미만
8	참여자H	여성	1994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1원 이상 50만 원 미만
9	참여자I	남성	1985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2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
10	참여자J	남성	1995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1원 이상 50만 원 미만

특별 인터뷰 : 연구자의 말

적당한 거리에서 안부를 묻는

김나은 공동연구원

다 같이 모여 연구주제를 정할 때, 우리가 하고 싶던 주제는 거의 비슷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현재 청년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가. 지역에서 청년을 환대하는 공간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있다면 청년들이 과연 그 공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청년 공간이 있는데도 왜 아직 많은 청년들이 고립과 단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국경을 단혔고, 장거리 이동은 지탄할 일이 되었다. 활동 반경이 개개인의 지역으로 한정되면서, 사회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수면에 드러났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노인 빈곤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더 심하게 받았다.

그러면 청년은 어땠을까? 청년과 코로나19로 인한 뉴스 기사는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고용 시장에서의 암울함과 연관되어 있었다. 청년과 취업난, 구직난, 스펙 쌓기조차 어려운 상황...하지만 정말로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걸까? 청년들은 고용 시장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닌데 기사를 읽다보면 결국 청년의 어려움은 '취업하지 못함'이 전부인가 싶었다. 이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커뮤니티라는 관심 주제 아래서 좀 더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시도가 이 연구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다. 코로나블루를 심하게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로 기회를 얻었다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가 아주 두려운 사람도 있고 이젠 익숙해져서 견딜만 하단 사람도 있다. 누구는 공동체적 삶을 살고 싶어서 커뮤니티를 원하고, 누구는 정보를 주고받을 인프라를 원해서 커뮤니티를 원한다.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청년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결과물 없는 친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년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엮는 과정이 고민스러우면서도 재밌었다.

인터뷰이들을 우울하게 했던 이유에는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내게는 '무력감'이란 단어가 자주 들렸다.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일상이 좌우되면서 청년들이 느낀 감정이다. 계획을 짤 수도, 계획대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내 견해로는 가족이건, 애인이건, 그보다 느슨한 관계이건 의지할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이 이런 위기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했다.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경험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어도 변함없이 믿음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아닐까? 연구 내내 이런 커뮤니티의 유무도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 자원이 위기 상황

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듯, 심리적 안정을 줄 커뮤니티도 청년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게 꼭 거창하거나 탄탄한 커뮤니티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코로나블루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집에만 있는 게 아쉽긴 해도 편했다. 지금까지 인생이 계획대로 흐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가 딱히 엉망이라 해서 놀라지도 않았다. 코로나19가 두려웠던 건, 내가 감염되면 아무도 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막막했을 때뿐이었다. 고양이한테 나밖에 없다. 나이도 많은데. 나는 아플 수도 있고, 집을 비울 수도 있고, 해외에 오래 있을 수도 있다. 그 때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다면? 내 늙은 고양이는 어찌지? 혼자서 잘 사는 거랑 상관없이, 자립한 삶을 살고 싶을수록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게 없다면 우리 삶은 한층 더 위태롭고 불확실하며, 아주 외로워진다. 적당히 느슨하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챙겨줄 수 있는 관계망이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가 우리가 믿고 있던 현실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면, 그걸 헤쳐 가는 방법은 이런 느슨한 관계망에 기대 우리가 연약하거나, 잠시 멈춰있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일 것이다.

IV. 조사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2. 집단인터뷰(FGI)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1. 응답자 인구통계 (온라인)

○ 총 응답자 수 : 141명

[표 1] 응답자 인구통계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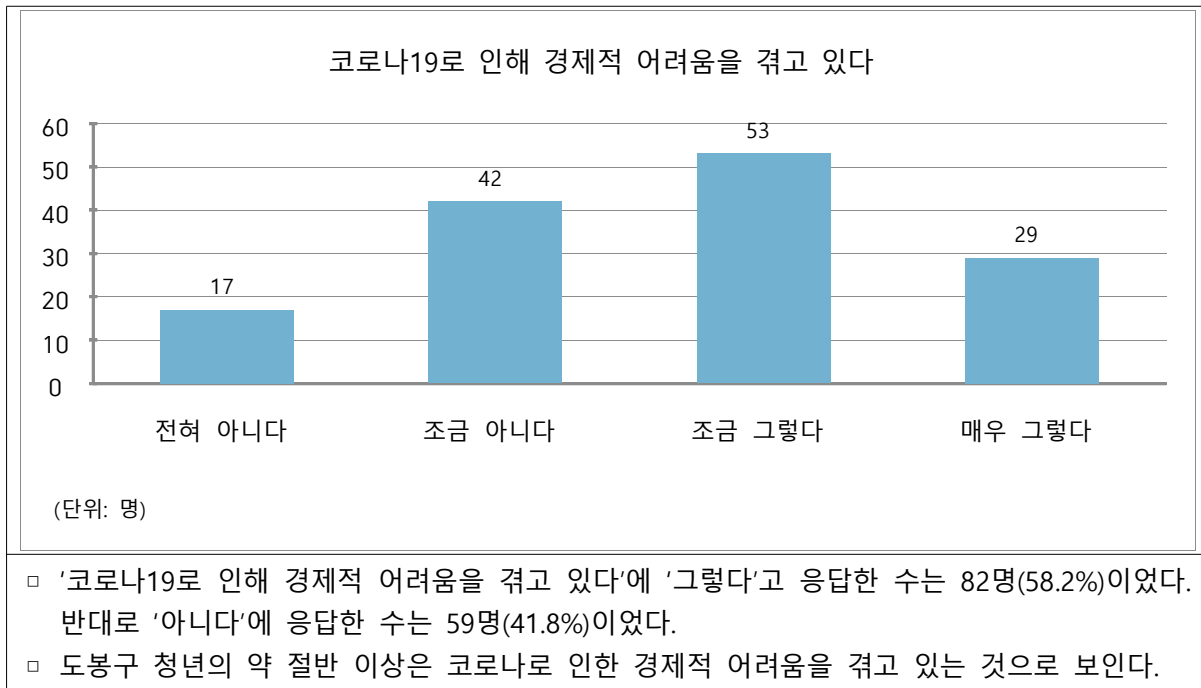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	구분		응답자	(%)
법적 성별	남성	34	24.1	가구 형태	1인 독립가구	26	18.4
	여성	107	75.9		2인 이상 동거가구	30	21.3
	전체	141	100.0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82	58.2
출생 연도	1982	4	2.8		기타	3	2.1
	1983	2	1.4		전체	141	100.0
	1984	3	2.1	거주 형태	자가	76	53.9
	1985	3	2.1		전세	32	22.7
	1986	2	1.4		월세	33	23.4
	1987	4	2.8		전체	141	100.0
	1988	8	5.7	월 평균 개인 소득	1원 이상 ~50만 원 미만	33	23.2
	1989	6	4.3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19	13.4
	1990	10	7.1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4	9.9
	1991	9	6.4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	14.1
	1992	15	10.6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21	14.8
	1993	9	6.4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6	4.2
	1994	11	7.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	3.5
	1995	9	6.4		400만 원 이상	1	0.7
	1996	9	6.4		없음	23	16.2
	1997	7	5.0		전체	141	100.0
	1998	11	7.8				
	1999	12	8.5				
	2000	4	2.8				
	2001	3	2.1				
전체	141	100.0					

[표 2] 응답자 인구통계 명단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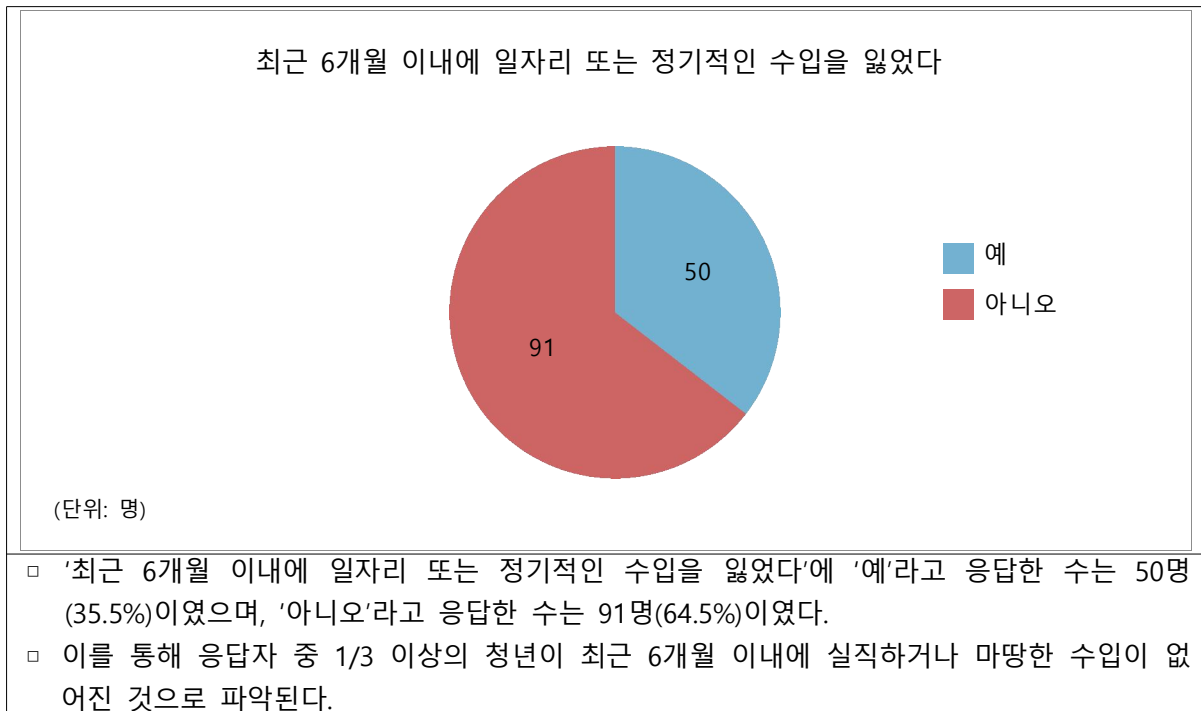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	구분		응답자	(%)
거주지	창동	49	34.8	활동지	창동	72	-
	도봉동	26	18.4		도봉동	33	-
	쌍문동	25	17.7		쌍문동	50	-
	방학동	20	14.2		방학동	32	-
	도봉구 외	21	14.9		도봉구 외	53	-
	전체	141	100.0		※ 중복선택 결과		

1.2. 설문조사 응답 결과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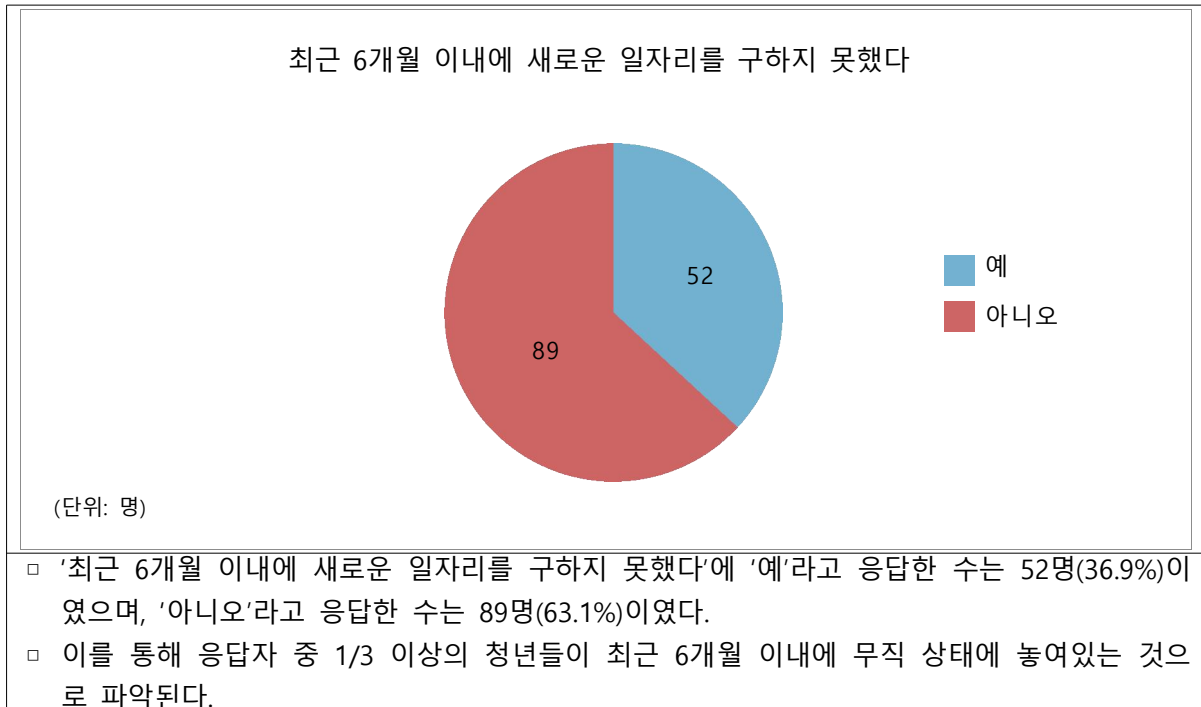
[표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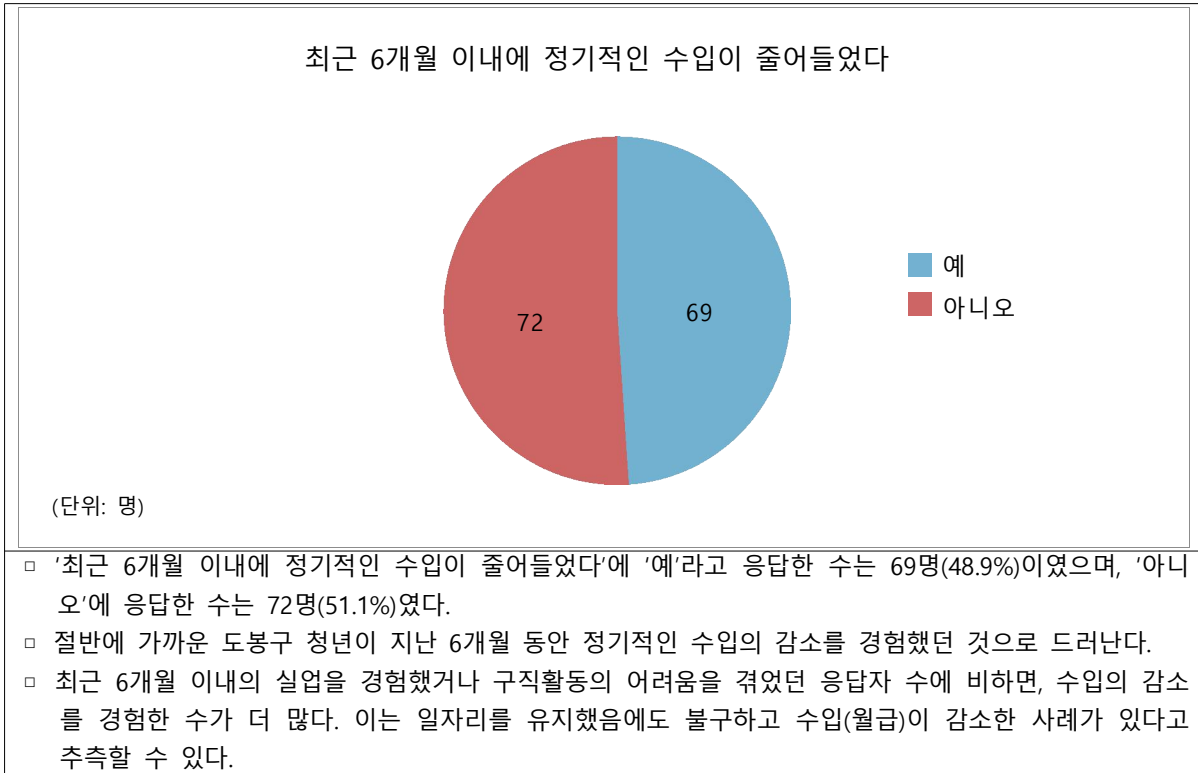
[표 4]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또는 수입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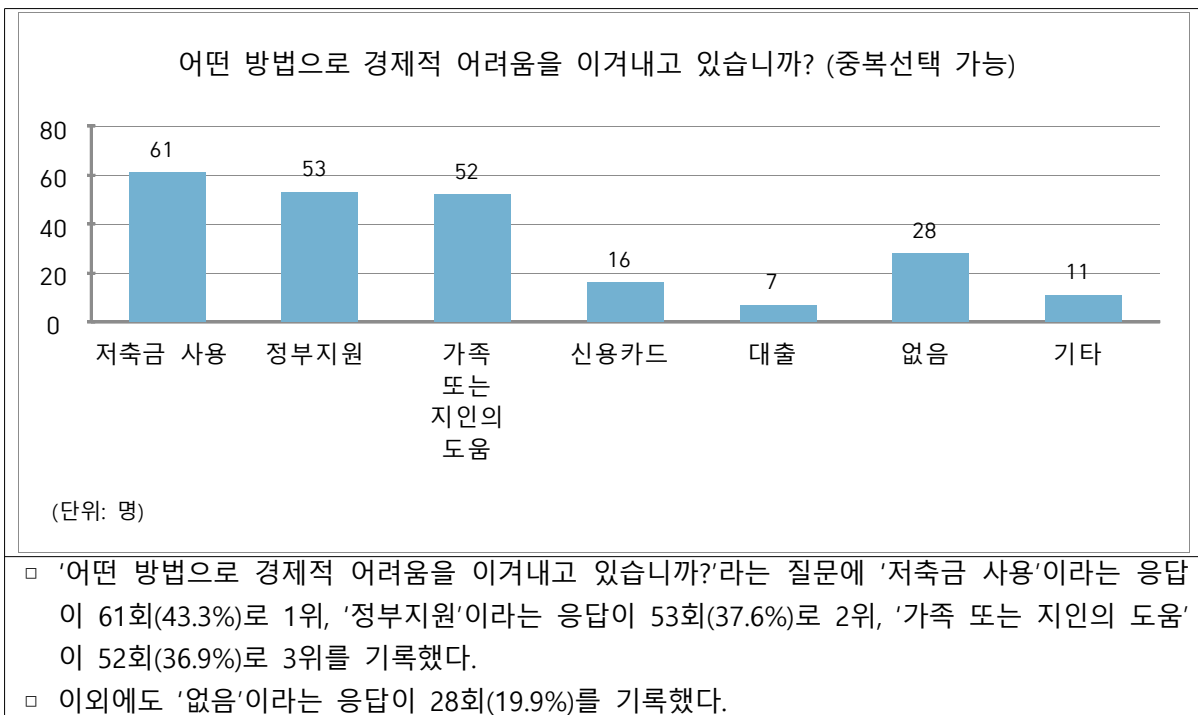
[표 5] 최근 6개월 이내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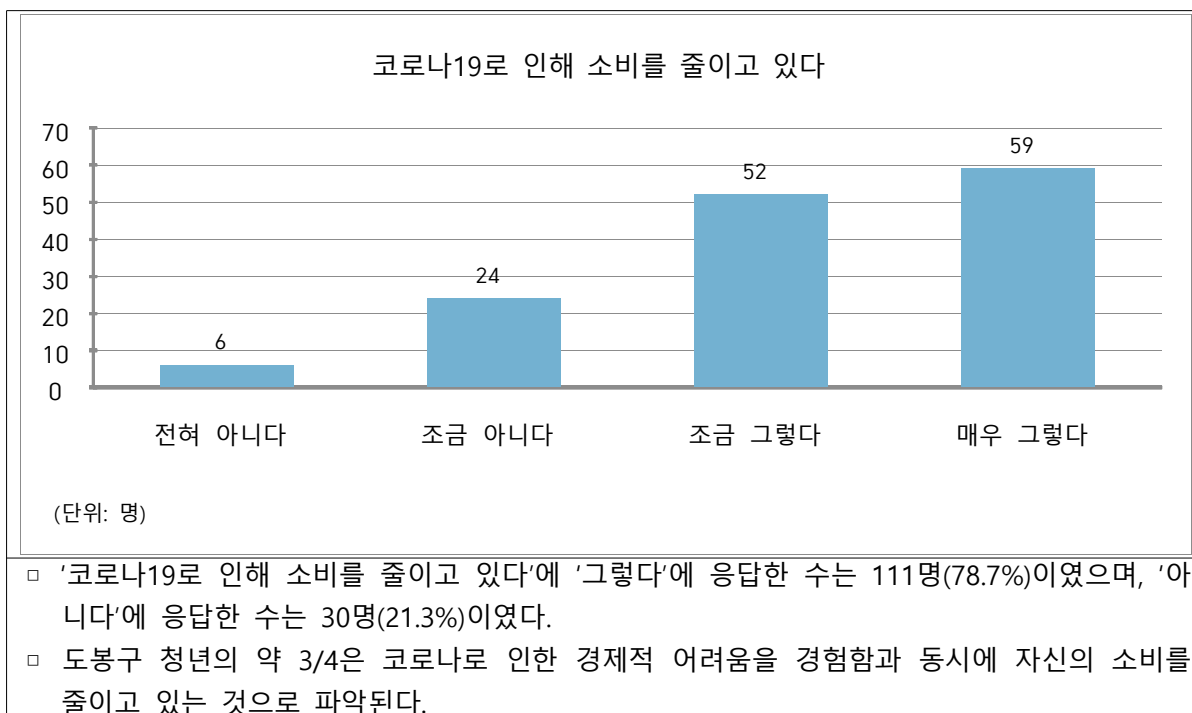
[표 6] 최근 6개월 이내 수입 정기적 수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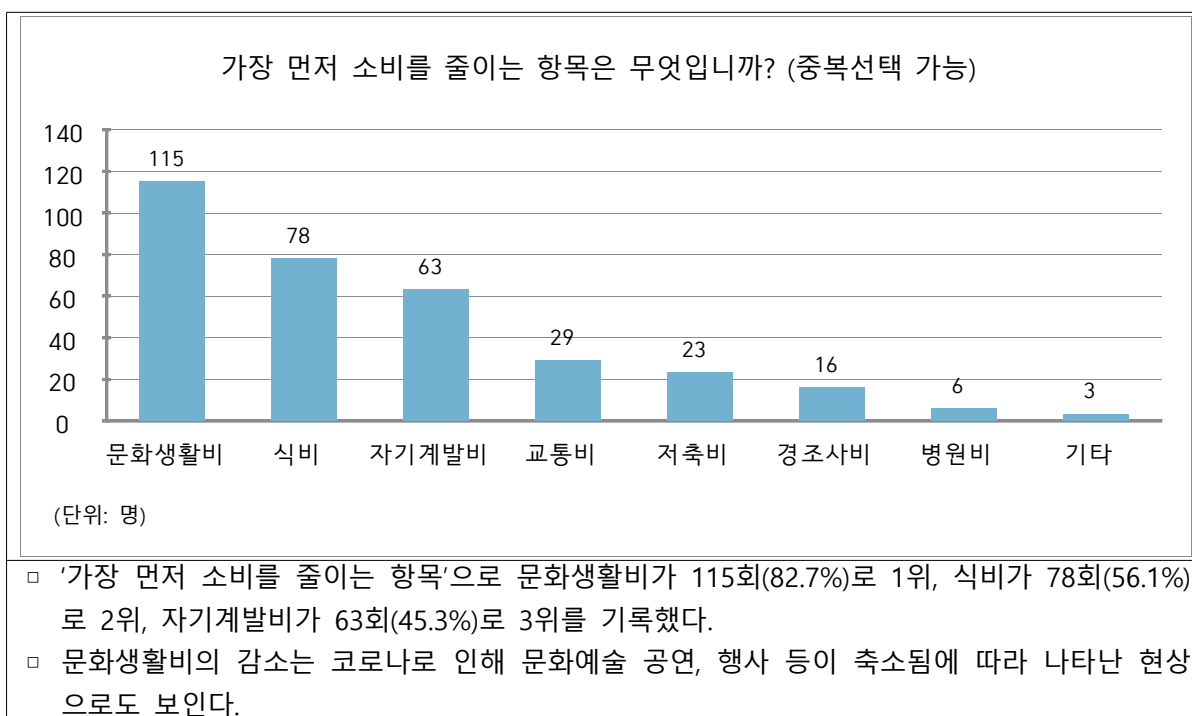
[표 7]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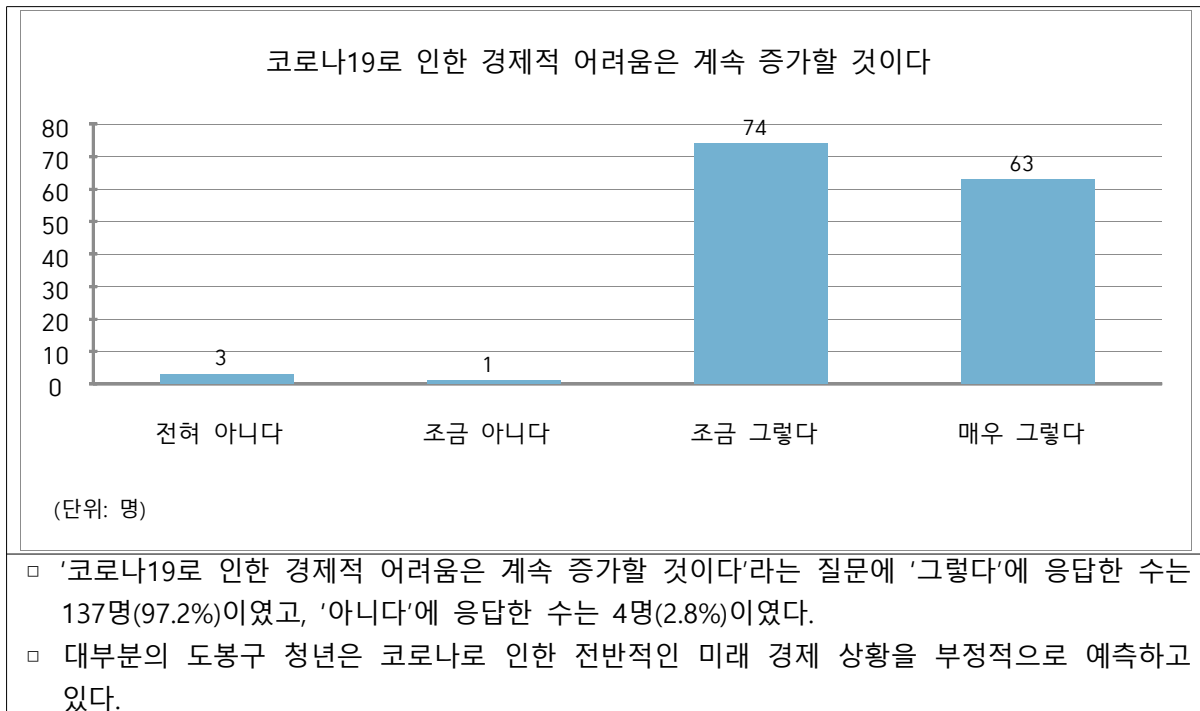
[표 8]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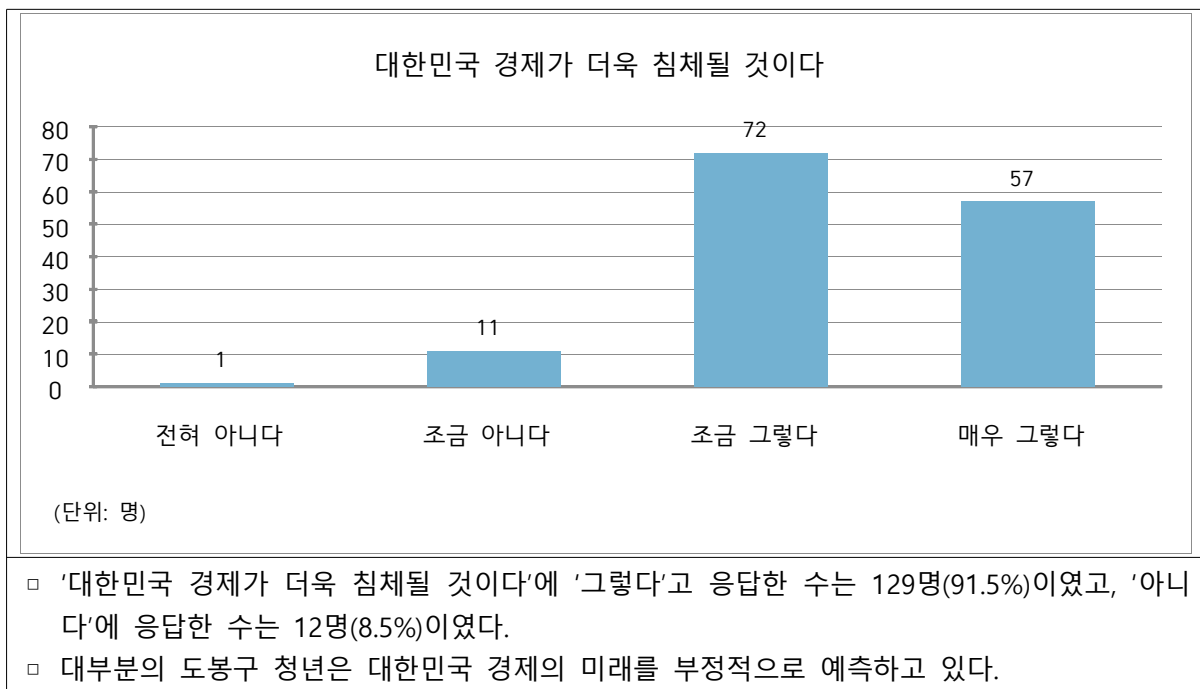
[표 9] 소비 감소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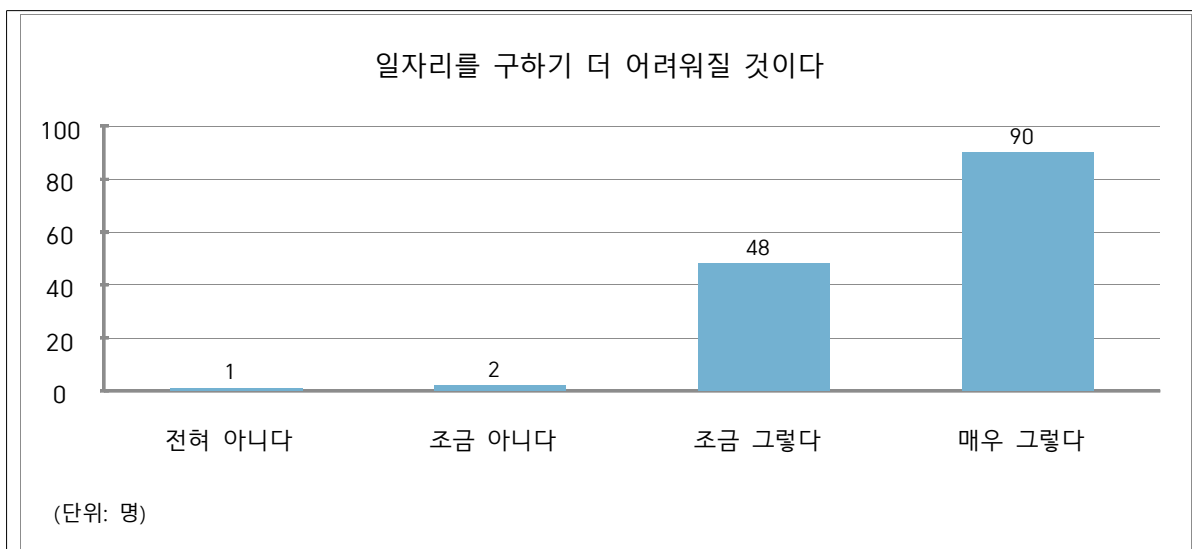
[표 10] 미래 경제적 어려움 예측



[표 11] 대한민국 경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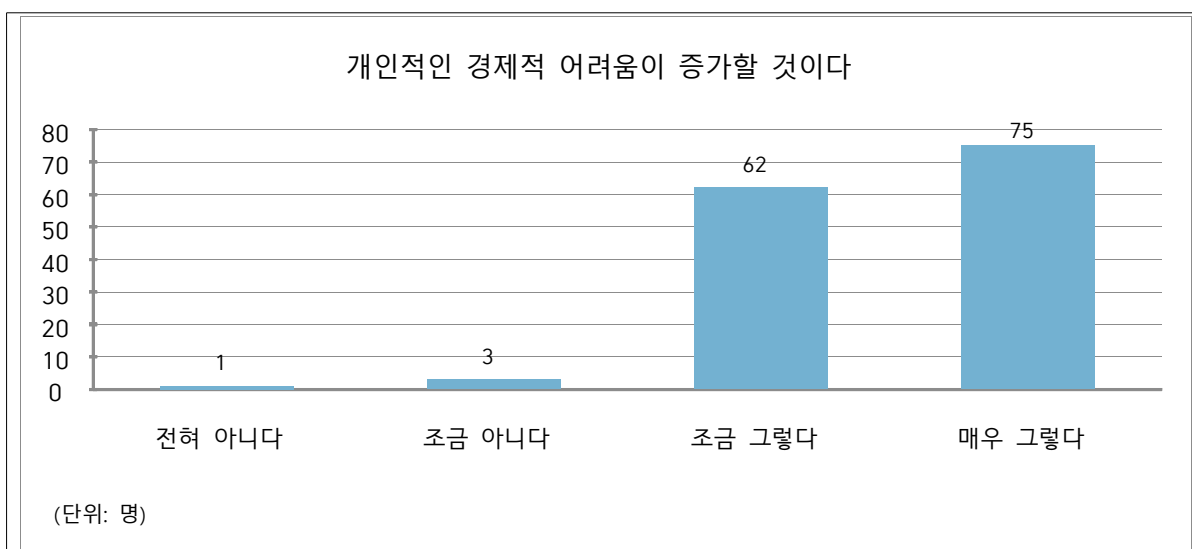


[표 12] 구직 활동의 어려움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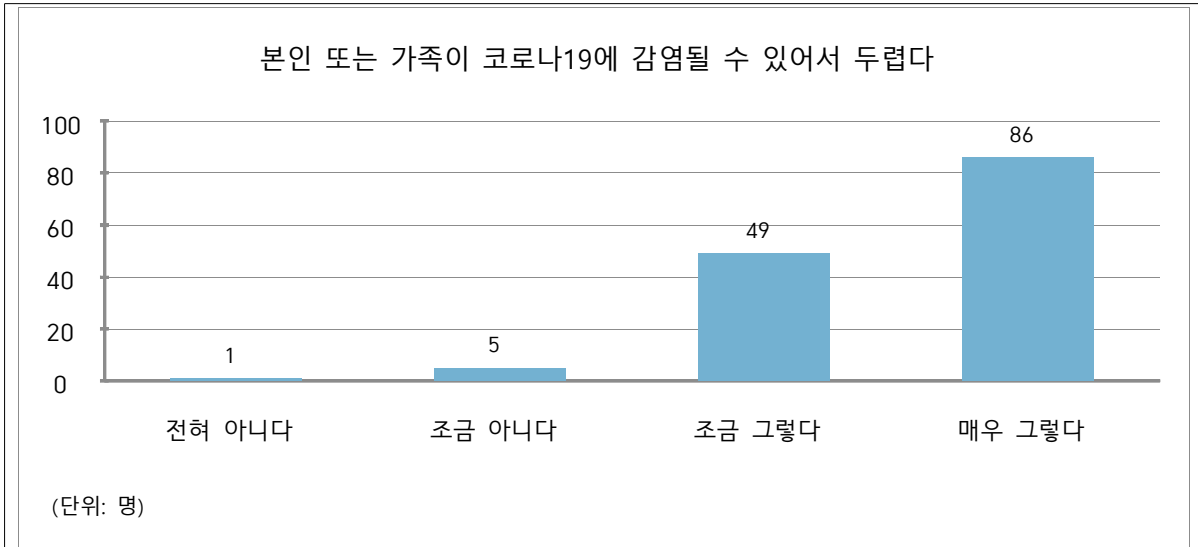
- '일 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38명(97.9%)이었고, '아니다'에 응답한 수는 3명(2.1%)이었다.
- 대다수의 도봉구 청년은 향후 구직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표 13] 개인 경제의 어려움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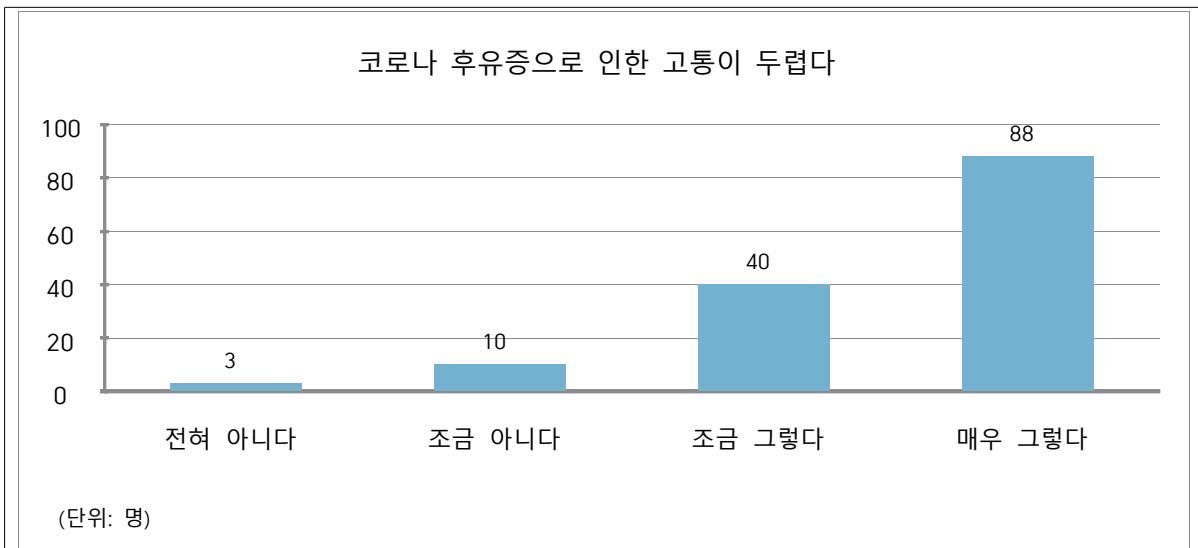
-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37명(97.2%)이었고, '아니다'에 응답한 수는 4명(2.8%)이었다.
- 대다수의 도봉구 청년은 향후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표 14]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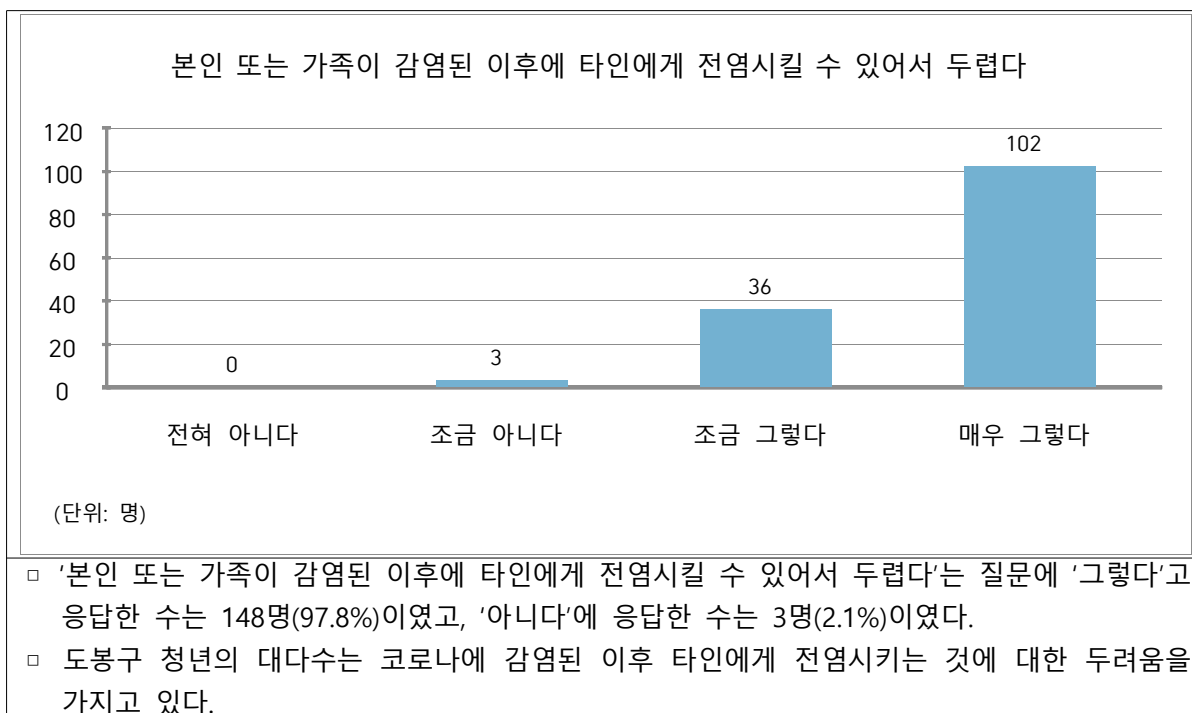
- '본인 또는 가족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어서 두렵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35명(95.7%)이였고, '아니다'(4.3%)에 응답한 수는 6명이였다.
- 도봉구 청년의 대다수는 코로나로 인한 본인 또는 가족의 감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표 15] 코로나 후유증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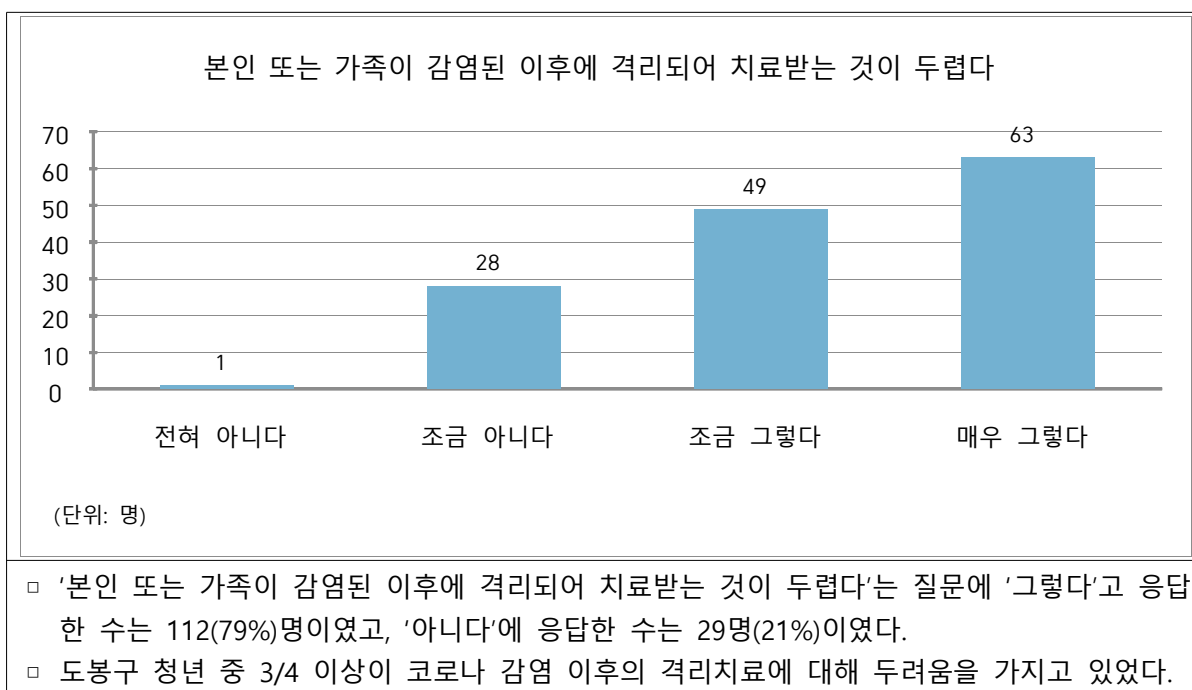


-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두렵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28명(90.8%)이였으며, '아니다'에 응답한 수는 13명(9.2%)이였다.
- 도봉구 청년의 9/10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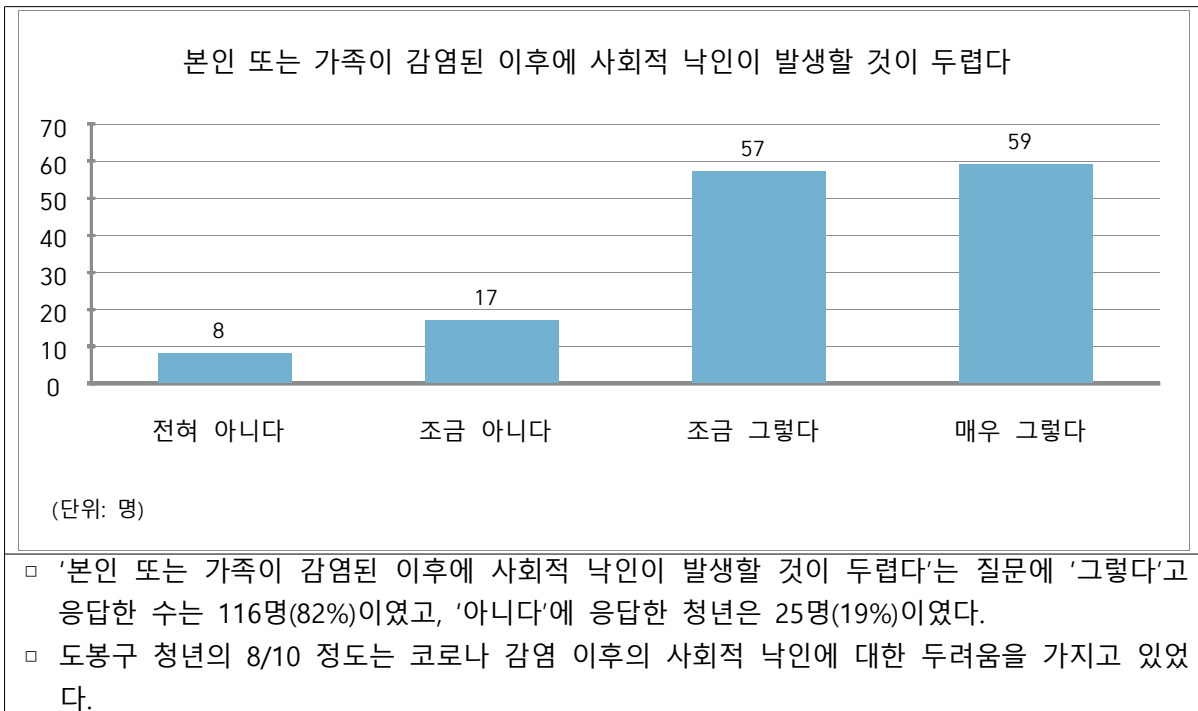
[표 16] 코로나 감염 이후 전염 가능성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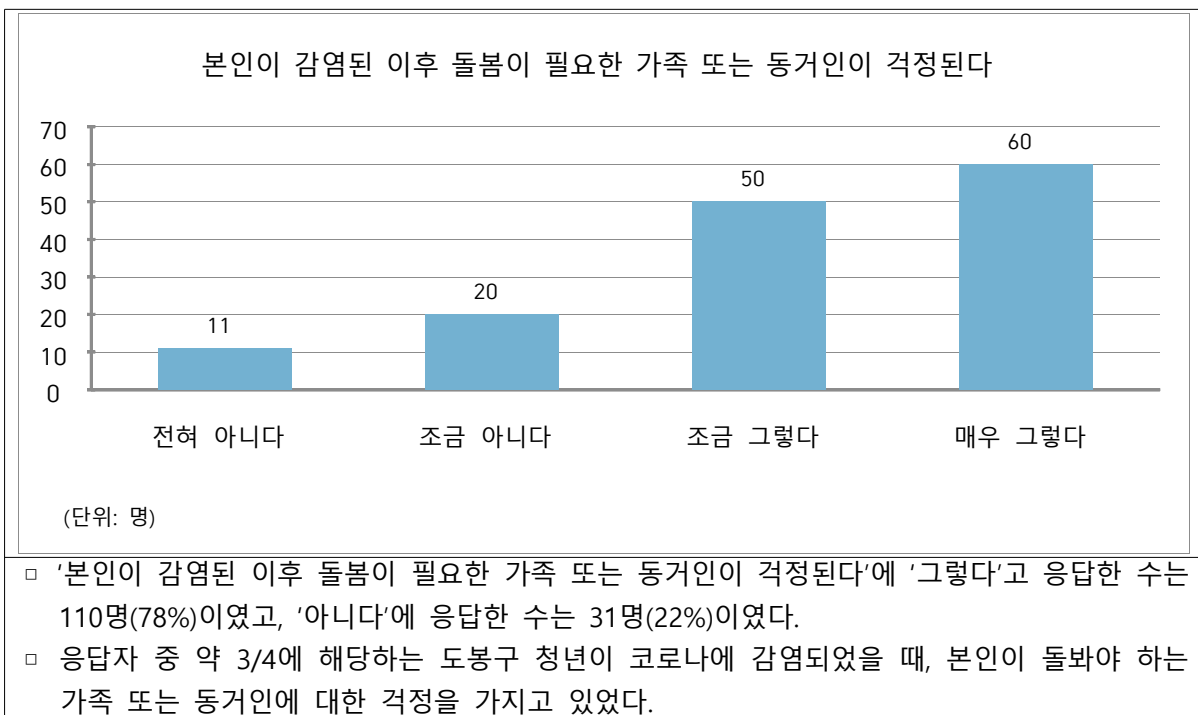
[표 17] 코로나 감염 이후 격리치료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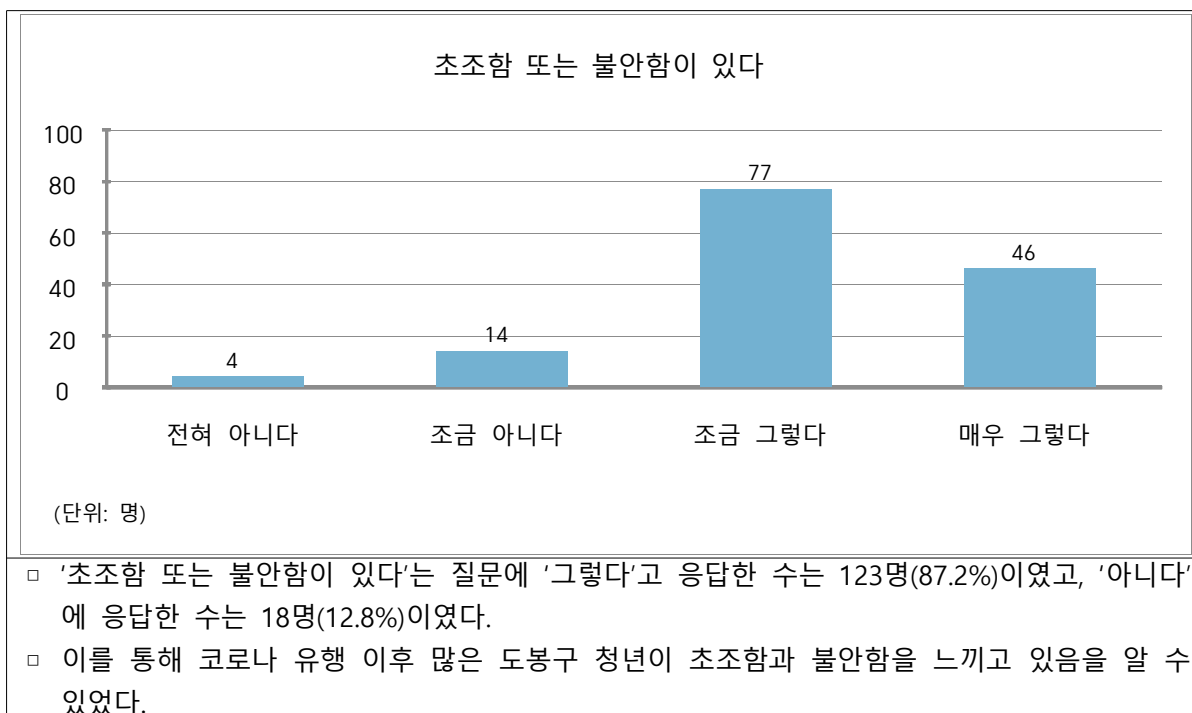
[표 18] 코로나 감염 이후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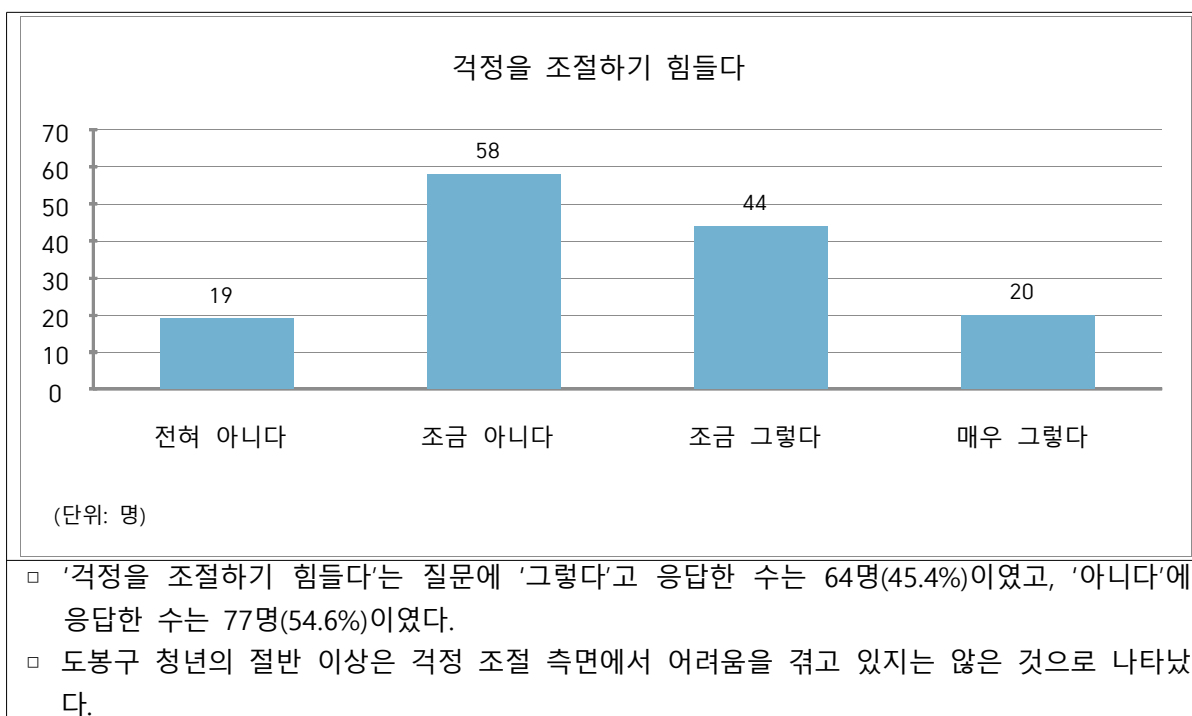
[표 19] 코로나 감염 이후 돌봄의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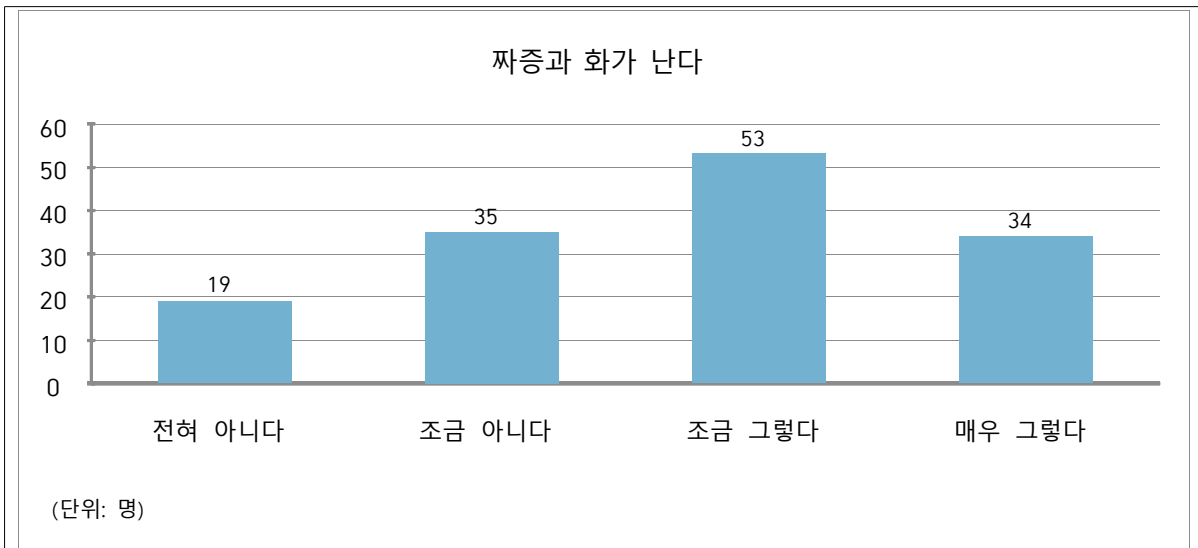
[표 20] 초조함 또는 불안감



[표 21] 걱정 조절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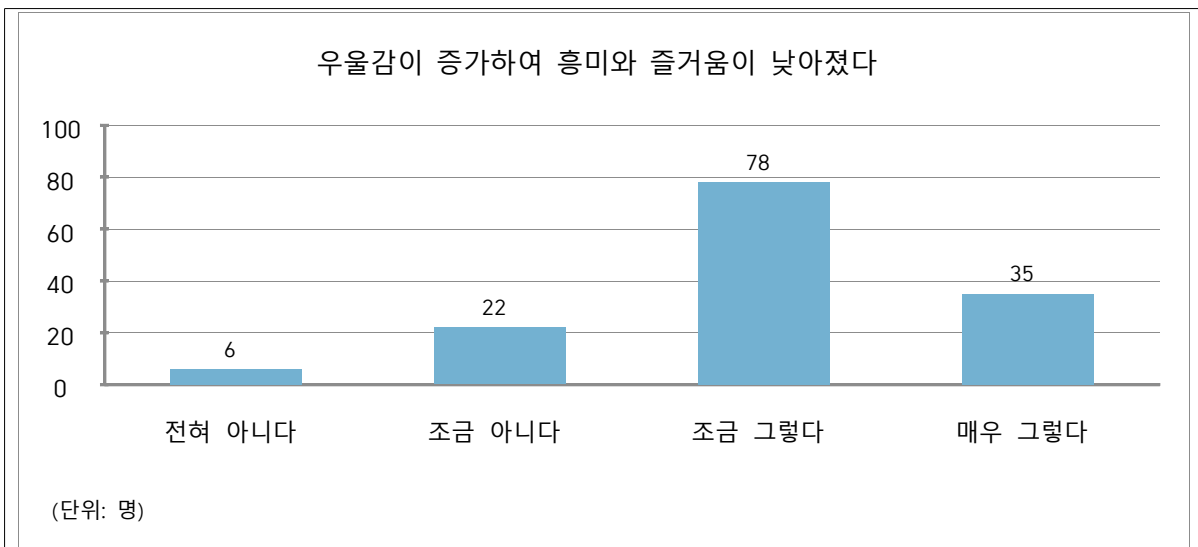


[표 22] 짜증과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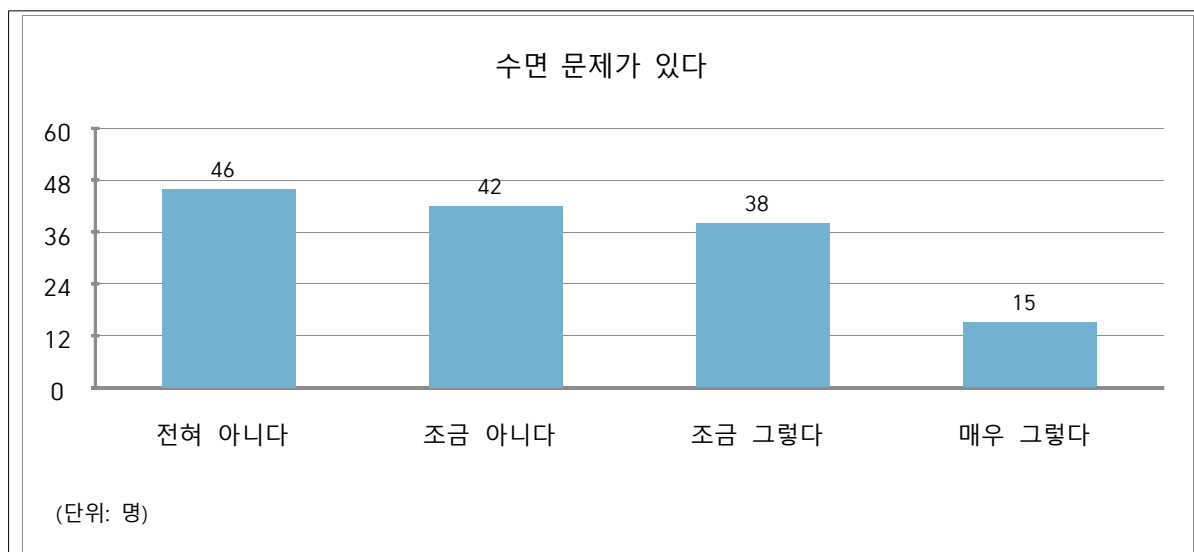
- '짜증과 화가 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87명(61.7%)이었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는 54명(38.3%)이었다.
- 도봉구 청년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 유행 이후 짜증과 화가 난다고 응답했다.

[표 23] 흥미와 즐거움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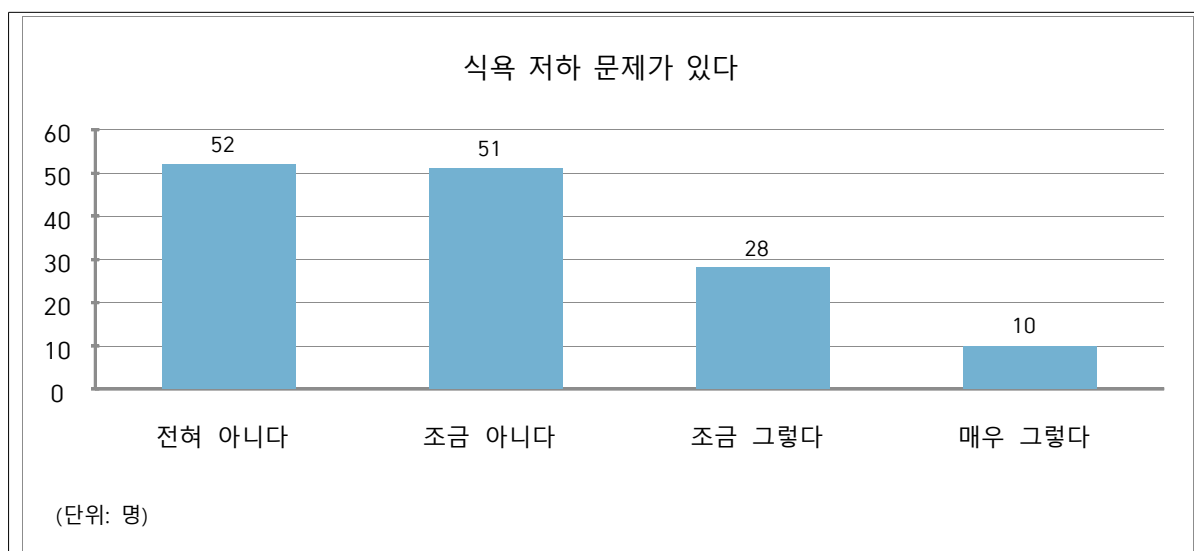
- '우울감이 증가하여 흥미와 즐거움이 낮아졌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113명(80.1%)이었고, '아니다'(19.9%)라고 응답한 수는 28명이었다.
-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묻는 다른 질문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도봉구 청년은 우울감으로 인한 일상의 흥미와 즐거움이 낮아진 것을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4] 수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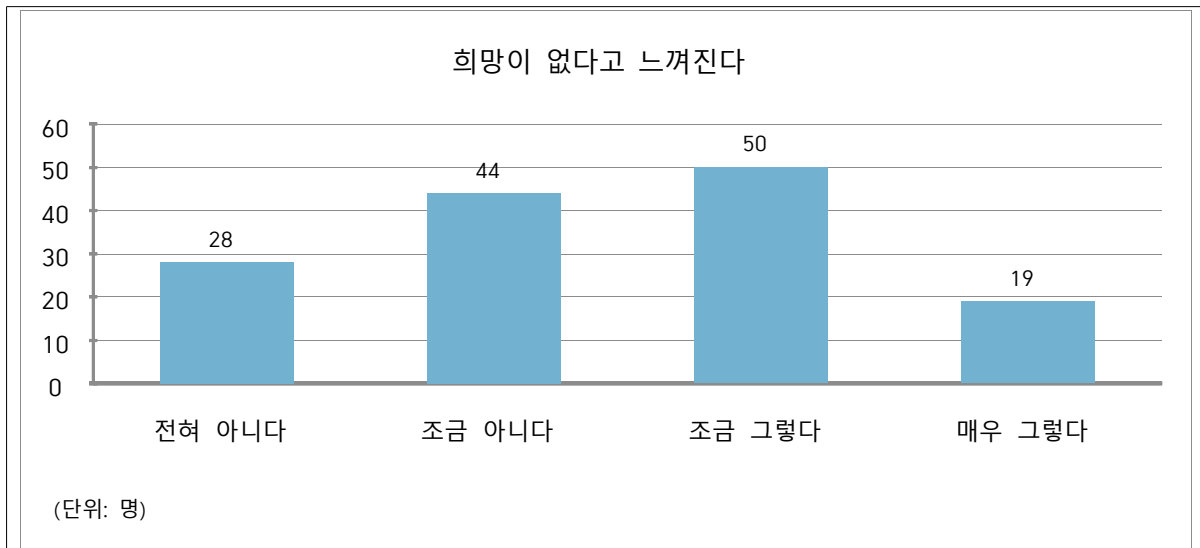
- '수면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55명(39%)이었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는 88명(61%)이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봉구 청년의 절반 이상은 수면으로 인한 문제를 겪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25] 식욕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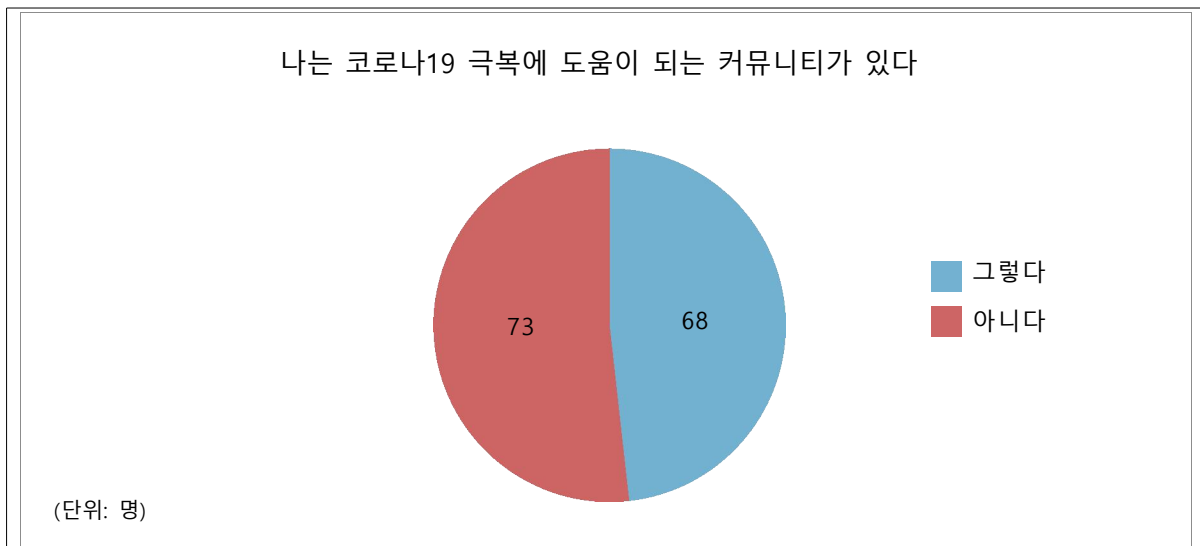
- '식욕 저하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38명(27%)이었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는 103명(73%)이었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봉구 청년 중 3/4에 가까운 청년이 식욕 저하로 인한 문제는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26] 희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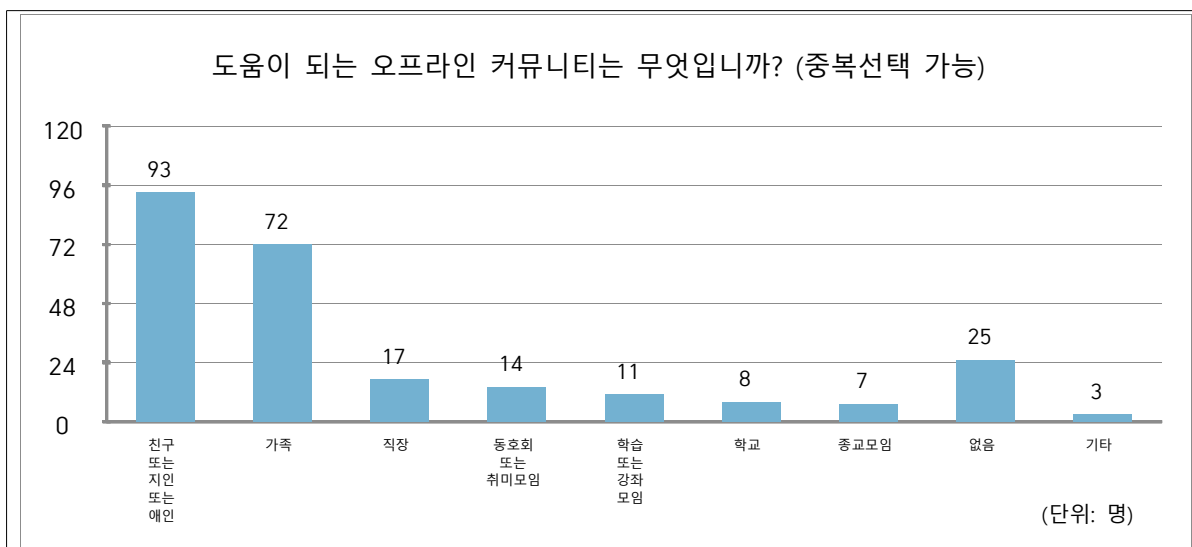
-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69명(48.9%)이었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년은 72명(51.1%)이었다.
- 희망의 유무에 대한 질문은 현재 심리적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항이다. 이 질문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청년이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도봉구 청년이 코로나로 인해 높은 강도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7]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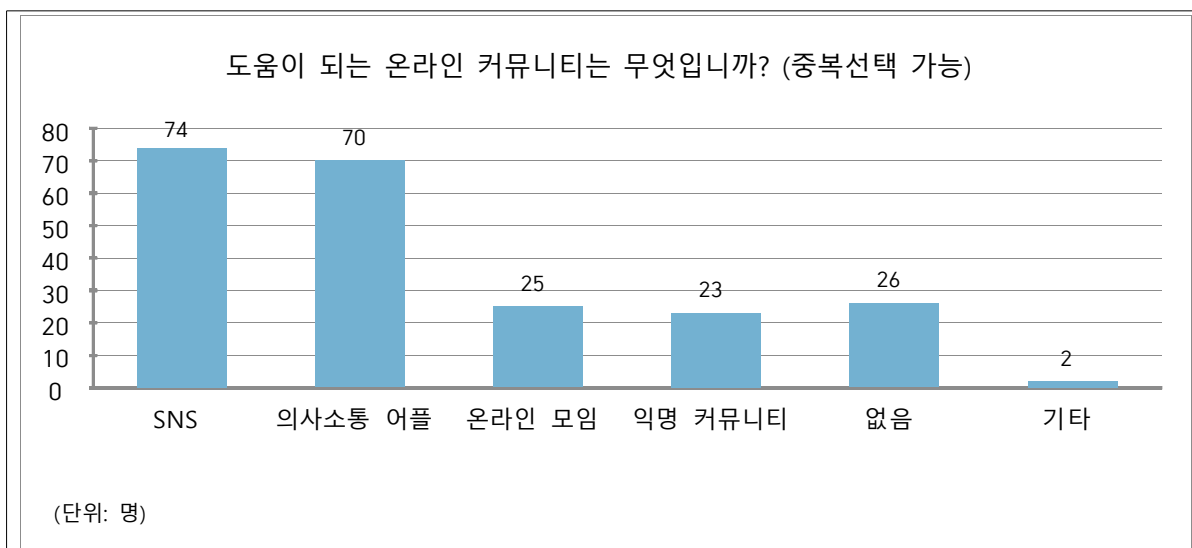
- '나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68(48.2%)명이었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청년은 73명(51.8%)이었다.
- 응답 결과의 차이가 약 3%p이지만 '아니다'에 응답한 청년이 더 많았다.

[표 28]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



-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친구 또는 지인 또는 애인'이라는 응답이 93회로 1위, '가족'이라는 응답이 72회로 2위, '없음'이라는 응답이 25회로 3위를 기록했다.
- 설문 결과 친구, 가족, 지인, 애인 등 가까운 거리 내 사람과의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응답 결과 중 3위를 기록한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없을 경우, 코로나 유행 시기에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표 29] 도움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 '도움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SNS'라는 응답이 74회로 1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과 같은 '의사소통 어플'이 70회로 2위, '없음'이 26회로 3위를 기록했다.
- 설문 결과 도봉구 청년은 SNS와 의사소통 어플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온라인 모임과 익명 커뮤니티를 그 다음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1.3.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응답자 인구 통계 중 가구 형태를 보았을 때, 도봉구 청년의 약 80%는 원가족(부모와 형제자매)과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서울의 외곽지역이자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봉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도봉구 청년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또는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크지 않지만, 수입이 감소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감소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었고, 그중 문화생활비와 식비 등을 주로 줄이고 있었다.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었으며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
- 대다수의 도봉구 청년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전파, 격리치료,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유행 이후 우울감으로 인해 일상의 흥미와 즐거움이 감소했으며, 초조함과 불안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하였다.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로는 가족, 친구, 지인, 애인 등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로는 SNS와 의사소통 어플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응답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모두에서 3위를 기록하여, 도봉구 청년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 인터뷰 : 연구자의 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나요?

햇님(안혜림) 공동연구원

극복.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 냄, 그리고 적을 이기어 굴복시킴.

코로나 초장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냅시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000 여러분 힘냅시다”, “국민 여러분, 함께라면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등등. 나는 요즘 이렇게 희망차고 긍정적인 말들이 가끔 불편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재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재난 이후의 상황을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들은 <2020 NPO 국제컨퍼런스>에서 한 연사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다. 나에게 극복하자는 말은 마치 어떻게든 존버(존중하며 버티기)하면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된 말처럼 들렸다. 그냥 지금은 잠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나만 안 걸리고 잘 버티면 우리가 기억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겠지, 코로나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 난 이런 안일한 마음보다는 연사님의 말처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이고 싶다. 소외받는 누군가와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하는, 이전보다 나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

141명의 설문조사, 10명의 인터뷰, 연구원 4명의 이야기를 담겨있는 작은 표본의 보고서지만 결과물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단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을까 드는 걱정,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코로나 관련 인물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등. 공간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다 강제 해고된 것도 코로나 때문이었고, 잘 다니던 수영도 관둘 수 밖에 없던 이유도 코로나였다. 이마트 창동점에서 확진자가 나온 그 당일 오전, 나는 이마트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었다. 지인이 알바하던 곳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복잡한 코로나 블루에 대처하는 방법은 마음 돌봄, 심리상담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가지 방법으로 다룰 수 없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작 나 또한 개인 상담만 받을 때보다 일이나 활동을 병행했을 때 훨씬 마음이 더 나아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말이다. 미숙한 점도 많지만 이 연구 활동이 재난 이전 상황을 뒤로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다. 이 보고서가 도봉구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할 때 나를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 앞으로 넓게 생각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배움과 활동은 도봉구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걸려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도봉구 내에서 하고 싶다'란 강한 욕구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하게 되니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생각보다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기회도 많다고 느꼈다. 이곳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얻었달까.

교류하는 도봉구 청년은 그저 고등학교 친구들 셋 뿐이었는데, 연구 활동을 하며 3명이 더 늘었다. 창동역 윗 쪽에 사는 사람들은 노곡중을 가고 아래 쪽은 창동중을 가고- 같은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도봉구에 스타벅스가 2개 밖에 없음을 같이 한탄할 수 있었다. 부지런히 바로바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셨던 보경님,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사는 나은님, 갈수록 수척해지시는 (...) 고생 많이 하신 태환님. 함께 만나 연구 활동 할 수 있어 참 즐거웠단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 청년이 이런 활동과 작당모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청년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2. 집단인터뷰(FGI) 결과

2.1.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청년층 역시 이런 경제 여파에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감소했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사업 규모 축소로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수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도봉구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생긴 여러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대응 방법, 정부 지원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1.1.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

대다수의 답변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 휴직 혹은 수입 감소 등 고용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공연 예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타격이 컸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봉구의 청년 대다수가 수입 감소를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돼 있었다. 수입 감소의 이유로는 실직, 휴직, 일거리의 감소 등의 유형이 있었다.

1) 일거리의 감소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방과 후 교사처럼 특수고용직에 일하는 경우 행사나 코로나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연극배우로 뭘 하거나 밖에 야외 행사를 하는데, 올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도 안좋아지고 행사가 없어졌다. 수입을 떠나서 그걸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걸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참여자 J

“왜냐하면 9월 말에 행사가 길게 있었거든요. 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그 목사(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다 날아갔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4~5백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백도 벌기 힘들죠.”

-참여자 F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방과 후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내년엔 그러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면서 버텨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맞는지 (...)”

- 참여자G

2) 휴/퇴직

코로나로 인해 휴직이나 퇴직 등을 경험한 답변자도 있었다. 휴직이라 할지라도 정부 지원 업종에 종사할 경우 수입 감소의 여파가 극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퇴직의 경우 퇴사 후 프리랜서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정 수입이 없다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

“전 직원이 2월부터 휴직에 들어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항공이나 여행업은 특별직업군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나라 보조금을 받고 지금 유급휴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기한적인거라서 이게 국내가 좋아졌다고 하고 또 터지고 해서. 한 달 간격으로 휴직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여를) 수치상으로는 70프로만 받고 있어요. 월급이 거의 100만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참여자 C

“회사가 행사 일을 많이 했는데 그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회사가 선택한 방안은 경력직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막내 직원이다 보니 중간에 제 월급이 반 토막이 났는데 다른 직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밀려나서 참고 참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오게 된 케이스죠 (...)가끔씩 누군가를 통해 디자인의료가 들어오면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식이고. 아는 사람에게 하다 보니 페이가 많진 않고 고정수입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가장 컸어요.”

-참여자 A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중지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입에 심한 타격을 받는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취약해진 집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은 상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2.5단계에서 컸어요.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로. 2.5단계는 극단적이었던 게 공고가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내려졌어요. 2-3일 내에 다음 주에 닫으라고 했는데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은 2-3일내에 일자리가 끊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그래서 되게 놀랐었죠.”

-참여자B

이런 수입 감소의 양상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같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직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회사, 기관 등에 속해 있는 경우 수입이 줄거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일자리를 잃거나 심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더라도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수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말한 답변자도 있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정도보다는 고정 수입으로 인한 고용 안정감을 느끼는지의 여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 해소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강사 생활할 때가 더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고, 서울시에서 생활 안전 지원금을 주고. 코로나 덕분에 독거 프리랜서 심사하는 거 짧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가. 고용안전 지원금 100 만원 받고. 그리고 돈이 떨어질 즈음에 운 좋게 단기간이긴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됐고요.”

-참여자 E

4)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경우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크게 수입 감소를 겪었다기보다는, 해당 직무의 전망이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다른 직무를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비스직이었어요. 호주를 가더라도 레스토랑 매니저가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도 취직을 예정된 데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되어서.. 그럼 (문화예술 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에도 올인을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가급적이면 어떤 변수에도 2.5단계만큼의 타격은 받지 않도록 이번에 창업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현타가 심했죠.”

-참여자 B

“원래 밖에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원래대로라면 'NO재팬'부터 취업하는 게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no재팬으로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혼란을 쳐버려 가지고. 학원에서 알바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학원이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었고.”

-참여자 D

2.1.2. 수입 감소에 따른 소비 변화

1) 수입 감소에 따른 대처 양상

수입은 감소했지만,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초기에는 저축금 사용, 부모님의 지원, 퇴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저축금으로만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으로 하다가 점점 힘들어지는 (...)”

-참여자 A

“청년수당을 신청했어요. 그걸로 숨통이 좀 트이고 (아르바이트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었는데 2.5 단계가 컸던 게 그거죠. 그 2주 동안은 알바도 안 가니까. 이제 잘못하면 제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진 정부지원금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소비생활을 아낀다든지 전혀 바깥 생활을 하지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대중교통도 아예 안 탔죠. 제가 조금 마음고생을 하면서 아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면가 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축의금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썼어요. 결혼은 6월에 했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다 썼죠. 일단은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줄여달라고 얘기해본다거나. 아니면 적금을 깨든가.”

- 참여자 F

“저는 그래도 정부에서 돈이랑 회사 월급이 다달이 나오고 있어서 수입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닌데 기존에 쓰는 금액은 그대로거든요 거의 반 이상 줄다 보니, 저도 제 자신을 통제를 했어요. 답답한 거 참으면서 친구 안 만나고 밖에 안 나가고 놀러 나가는 것도 참고.”

-참여자 C

학원에서 알바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학원이 코로나 때문에 쉬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었고. 청년수당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11월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모아 놓은 돈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부모님한테 요청을 받아야 될 거 같은 상황.”

- 참여자 D

2) 소비 감소 항목

가장 많이 소비를 줄이는 항목으로는 저축, 자기계발비, 외식비 등이 있었으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수의 청년들이 경제적 위축을 겪고 있었으며 소비 감소가 원해서가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일어난 만큼 답답함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많이 줄었어요. (소비가)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감소가 되니 일단 저축을 많이 줄이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쓰는 외식비 같은 게 많이 준 것 같아요.”

- 참여자 G

“다 줄인 건 맞고요. 일단 가장 많이 줄인 거는 식비. 자기계발도 줄었죠.”

-참여자 F

“저는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이) 자기계발비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배운다던가. 가장 영순위가 그거였던 거 같고요. 그다음이 식비였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저도 똑같이 자기계발비 줄이고 식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게 있으면 거의 안 만나는 걸로 바꾸는 거 같아요.”

-참여자D

“일단 가장 많이 줄인 거는 식비. 자기계발도 줄였죠. 예전에는 헬스나 운동 춤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하고. 식비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넣고 있는 거 해지했고. 만나는 것도 웬만하면 줄이고. 실제로 모임에서 서로 못 보는데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참여자 F

“저는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카드를 덜 쓰게 되긴 했어요. 카드를 덜 쓰게 되니까 카드 지출 내역이 월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여자 I

2.1.3. 공공 지원 대책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청년들 대부분이 정부가 제공한 재난 지원금이나 일자리 지원 정책, 고용 안정금 등을 받았다. 이런 공공 지원 정책을 통해 상황이 많이 개선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공공 지원 대책에 대한 감정은 추후 국가 부채, 세금에 대한 부담 등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1) 지원금의 소비 양상

답변자 대다수가 코로나 여파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액수는 달랐지만 대부분 식비,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난 지원금의 대부분은 식비, 생활비로 사용했다. 재난 지원금 말고도 특구 프리랜서 지원금, 청년수당 등 공적 지원의 수혜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가족들끼리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걸로 대부분 썼기 때문에. 외식할 때 쓰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더 먹을 수 있는 꿈든 생긴 정도.”

-참여자 J

“부모님이 거의 쓰셨는데. 장 보는 쪽으로 거의 쓰셨더라고요.”

-참여자 H

“그게 처음에는 도봉구에서만 쓸 수 있었잖아요. 회사는 중구였는데 도봉구에서는 집에 와서 편의점 정도만 쓸 정도로 불편했는데 범위가 확대되고 나서는 잘 썼어요.”

-참여자 A

“저는 처음에 서울시 생활 안전 지원금 30만 원 정도를 제로 페이로 받았고. 그때 그걸로 공과금 낼 수 없어서 80 퍼센트는 먹는 걸로 썼던 거 같아요. 또 2차로 50 만원 받았을 때 밀린 공과금 내고. 남은 돈으로 먹는 거 생필품 같은 거 사고.”

- 참여자 E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수당 받고 있고요. 거의 다 쓰는 비용들이 공과금이랑 차 기름값 식비로 빠져나가요. 그걸로 따로 자기계발을 한다는 거 자체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참여자 D

“처음에 2인 가구여서 서울 재난 지원금 50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받았던 게 1차 고용안정지원금. 그래서 걱정됐어요. 주로 사용한 데는 식비에 많이 썼죠.”

-참여자F

“4인 가족에게 주는 재난 지원금을 받았었고, 특구 프리랜서 지원금도 받았어요. 근데 특구 프리랜서 지원금은 원래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100만원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2차 적으로 또 프리랜서랑 관련해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주는 지원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축도 하고, 카드값도 메운 것 같아요. 거의 다 생활비로.”

-참여자 G

2) 지원금에 대한 인식

지원금을 받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소비에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소득 분위가 높더라도 가족 수에 비례해 지원 범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줘야지.”

- 참여자 J

“걱정은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참여자 H

“받아서 한 달 생활비는 잘 소모했다. (...)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앞선 세대가 모은 자원들이고 그걸 쓰게 되면 채워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걷어 갈까 같은 생각이 들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소득세를 올린다는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쓸 때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빚이라고 생각해요.”

- 참여자 I

“저희 집 식구는 5명이다 보니 저도 일을 하고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셔서 재난지원금 1차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전 국민이 대상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 보니. 동생들은 학교 다니고 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 이런 건 다 나오니까 사실 힘들어요. 저는 이런 정책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득이 많아도 가족 수에 비례해서 이런 것은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참여자 C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안 줬으면 좋겠다’ 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려고 쓰는 내 모습도 보기 싫고. 그거 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고.”

- 참여자 F

3) 도봉구 내에서의 지원 경험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 말고 도봉구 내에서의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경험에 물었으나 대다수가 홍보 부족, 자치구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련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도봉구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느낌이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재난 지원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니까 매체나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도봉구 내에서는 그런 게(홍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지원을 봤었는데. 서류 작성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좀만 빨리 알았더라면 했었을 텐데.. 구에서 받은 지원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J

“구에서 했던 것들은 소상공인 대출이나 자영업자 소규모 소액 대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지원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이나 30-40-50대를 위한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지원은 보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기업이 없다 보니까 크게 들어올 돈이 없고. 주민세나 소득세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분명히 적을 텐데. 그 안에서 모든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H

“무중력 지대 도봉이 생긴 건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거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무중력 지대 도봉은 도봉과 노원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았고.. 나머지 지원은 도봉구 자체라기보단 서울시 전체의 느낌이 강했어요.”

-참여자 I

4) 일자리 지원

현금성 지원금 말고도 서울시 희망 일자리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답변자도 있었다.

“이제는 9월부터 희망 일자리라고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단기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은 희망 일자리를 통해 공간 매니저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G

“서울시에서 생활 안전 지원금을 주고. 코로나 덕분에 독거 프리랜서 심사하는 거 짧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가.”

- 참여자 E

2.1.4. 추후 경제 전망 및 계획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청년들의 경제적 전망, 계획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거란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준비하기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느꼈고, 많은 경우 안정적인 경제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계발 등을 통해 경제난을 헤쳐 나가려 하고 있었다.

1) 추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대다수의 청년들이 추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구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많았다.

“확실히 알바 일자리가 없어진 거 같고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분야로도 이제 다. 공공기관 사람들이, 그런 거 때문에 청년들이 이공계 취업하려면 다 어렵고, 만약 그런데 돌린다 하더라도 다들 고용을 줄이기에 어디든 경쟁률이 높아 지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르바이트도 무급휴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 참여자 H

“운 좋게 취업이 됐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참여자 E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힘들 거 같아요. 끝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끝나면 올라가려고 하겠죠.”

- 참여자 F

2) 미래 경제 계획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을 깊이 느낀 청년들은 역설적으로 그 안정성을 얻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취업하기보다는, 자기계발을 통해 1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여파가 산업 구조에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해고와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취업으로도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자기계발에 몰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국비 지원 받아서 드론도 한 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이 시대에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 참여자 F

“어떤 변수에도 2.5단계만큼의 타격은 받지 않도록 이번에 창업도 생각이 들 정도로.”

- 참여자 B

“저는 아마 프리랜서로 아예 전향을 해서 1인으로 활동을 할 거 같고 주변인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스스로 브랜딩을 한다든가 스스로 돈을 버는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참여자 A

“내가 구상해왔던 다른 일들을 추진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사업적인 것들을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자금도 들어가는 일이고 계획을 세워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로 수익을 좀 창출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G

2.1.5. 경제적 심리 상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1) 타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타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나 이런 음식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선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하고 한달 한달 매달 벌어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 불안도 강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컸을 것 같고. (...)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참여자 G

“다들 수입을 버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돈 얘기가 나오면 조금 민감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조건 코로나 타격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의 영향이 가족 구성원 일원에게도 타격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참여자 A

2)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경우

도봉구의 청년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과 어려움이 심화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 19를 통해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을 느끼게 됐다고 응답한 답변자도 있었다. 이는 코로나 19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코로나 19의 공적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심리적 위축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이루어진 긍정적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공간 매니저는 경험해볼 수 없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해보게 됐는데, 이 공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라서 뭔가 사회에서도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일을 하는 공간들도 있구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이 제게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 제게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 코로나가 제게 부스터 역할을 조금 해준 것 같긴 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공예를 배우기 시작하게 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가 나타나서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 참여자 G

2.1.6. 요약 및 결론

- 도봉구 청년들이 코로나 19로 맞닥뜨린 경제적 타격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아르바이트생이 기관, 기업 등의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경제적 여파에 노출됐고, 타격의 정도도 더 컸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수입이 개선된 답변자들의 경우는 심리적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경제적 수입 감소 폭이 심한 청년의 경우는 분노,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감의 정도가 컸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청년들의 심적 우울함과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감정적 상담뿐 아니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수입 감소로 대다수의 청년이 소비 항목에서 자기계발비를 가장 먼저 줄였다는 답변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답변자들이 현재 경제난에 대처하기 위해 택한 방법 역시 자기계발이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심리적 문제 분석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이들이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에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다.

- 하지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은 경로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 지원, 가족, 지인 등의 커뮤니티 등이었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이례적으로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도로 공적 지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한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느끼는 청년이 많았고, 경제 전망 역시 비관적이었다. 다수의 청년들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창업, 유튜브 등 독립적인 1인 수익 구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래 경제 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2.2.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문제

<코로나 블루>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대표적인 용어이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⁶⁾

이처럼 우울과 관련이 없던 사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판단했다. 도봉구 청년들은 코로나 블루를 어느 정도로 겪고 있는지,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감정 두려움 / 불안감 / 우울감을 물어보았다.

2.2.1. 두려움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다 란 느낌의 감정이다.⁷⁾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백신과 치료법이 없으며 감염 시 예측하기 후유증을 남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은 크게 1)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감염, 2)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 3) 감염으로 인한 격리 과정에 두려움을 느꼈다. 예외적으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1)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감염

가장 대표적인 두려움의 이유였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도 예방제도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확진자와 접촉자는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치며 이후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복합적인 이유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다.

"솔직히 2월 달에 발생했을 때는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이 금방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어 놀랐고요. 그리고 약간 후유증이 있다 해도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당뇨나 탈모 이런 게 있다니까. 피부 이런... 아직까지 완치약이 안 나왔고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 되고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조금 더 그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고..백신이 아직도 개발이 안되니까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올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왔고 계속 유행하고 있고 조금만 모이면 생기니까. 위험성이 더욱 커진 거 같아요."

- 참여자 H

"제가 예전에 신종 플루에 걸렸었거든요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에 병원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날 때 저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어쩌면 나한테도 항체바이러스가 있어서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가족한테 피해를 친구들한테 영향을 끼치면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감염되는 것도 두렵고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도 두려워서.."

- 참여자 C

6)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 블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7) 표준국어대사전

2)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

개인이 다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큰 참여자도 있었다.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한 명은 일곱 살이고 한 명은 세 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초반에는 그런 염려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한여름에도 덴탈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KF80이상 KF94 항상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고 쿿구멍 내밀고 다니는 사람이나, 밀폐된 공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나 안하나 이게 되게 신경 쓰이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때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나만 아프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카한테 옮기거나, 조카를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아빠한테 혹시라도 영향이 갈까 봐.”

- 참여자 G

3) 감염으로 인한 격리 과정

원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1인 가구의 참여자는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 없이 혼자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안 계셔서 나 혼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서 공포감이 생기고...”

- 참여자 A

4)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덜 느끼는 유형

코로나 감염과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참여자가 있는 반면, 자신 또는 지인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두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자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주변에 확진자 혹은 자가 격리자가 없어 큰 실감을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으나 코로나와의 동행을 수용하고 방역을 지킬 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느낀다고 답했다. 두 참여자는 성별 외의 다른 공통 사항은 없었다.

“만약에 주위에 누군가 걸리거나 내가 걸렸거나 내가 아프면 불안하고 힘들었을 텐데, 방역을 잘 하는지 감사하게도 주위에 친한 분들이 아무도 걸리지 않아서.. (확진자 증가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그냥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거지, 제가 몰상식한 사람이었다면 마스크 벗고 다녔을 거 같아요 솔직히. 확진자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단계가 올라갔다 해도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 참여자 J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 주변에 걸린 사람이 1명 있었어요. 그 통증이 어느 정도라는 걸 듣기는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엄청 아프구나.' 그래서 위축은 많이 되죠 심

리적으로. 그렇지만 도봉구에서 바로 옆에서 데이케어센터 등 대량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비켜 가면 되지'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만 몰상식한 사람 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대신 한층 심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풀어진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 참여자 I

2.2.2. 불안감

불안한 감정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분위기 따위가 슬렁이고 뒤숭숭한 상태를 말한다.⁸⁾ 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인 기침과 발열 상태가 나타나면 코로나를 의심하며 쉽게 불안해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불안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 생활 제약으로 인해 다가왔다.

1)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었을 때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의 사람들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안감을 많이 느꼈다.

"불안감이 있었던 게,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걸려서 병원에 간걸 친구에게 들은 케이스라서 그걸 듣고 나니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친구는 병원 내에서는 가장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다가 퇴원한 케이스인데.."

다른 제 친구는 회사를 다니다가 2차 3차로 걸린 동료도 있어서 다 재택으로 돌리고 다들 보건소에서 검사 받는 과정도 생생하게 듣다 보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재확진된 상황도 보다 보니까... 기사에서만 보던 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진짜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 참여자 A

2) 가까운 혹은 익숙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자주 가던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시간대에 방문했다면?' 이란 질문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9월, 창동역 2번 출구에 위치한 이마트 창동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에 근처 거주 혹은 이마트를 이용했던 참여자들은 크게 동요했다.

"아직 주변에 (확진자는) 없지만 확실히 여기 창동 이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주변의 지인의 지인 중에서도 나오고. 어디 가면 무섭겠다 그런 생각 들고."

- 참여자 H

"최근 창동 이마트에서 확진이 있었는데 바로 집 앞이거든요. 그때 건강해야 한다는 이유로 헬스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너무 공포가 확 오더라고요.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

8) 표준국어대사전

고 나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도봉구 모임 하는 분이 확진자랑 1분 정도 동선이 겹쳤는데 자가격리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어요.)"

- 참여자 A

"이 (직장) 근처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확진자 수량 재난문자를 보면서 그때는 조금 겁을 먹었어요. 심지어 그때 근무지가 종료였어요. 하필 집회당일에 저는 출근이었는데 보이는 거죠. 저는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항상 보던 풍경이 아니라 거리를 통제하고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 있고..."

- 참여자 B

3)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외부 공간과 지역에 대한 불안전함

확진자 중 일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 섭취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있다 감염이 되었다. 혹은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방문 후 감염된 케이스도 있다. 이처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외부 공간과 지역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 불안한 순간이 있었다.

"저는 가고 싶은 곳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웬만하면 잘 안가고. 사람이 많은 식당은 잘 안 가게 되고. 그냥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먹는단가. 사람이 많은 곳을 잘 안 가려고 하고요."

- 참여자 E

"대중교통을 가급적 타지 않는다, 손잡이를 안 만진다, 항상 뛰던 강변에서 마스크를 쓰고... 공공운동기구도 못 만지고, 이정도 방역을 하고 있고... 힘들죠."

- 참여자 B

"저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 카페 같은 곳은 불안하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장소를 딱 어디 여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에 걸릴까봐 또 불안하고."

- 참여자 H

"다른 구에서 친해진 분들은 만나기 어려운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친한 형이 있는데 관악구 확진자가 많아서 서로 (불안해하고) 위험하니까 만나지 말자 이야기 하는. 구에서 구를 넘어가는 친분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기보단 누구의 집 아니면 누구의 사무실인 만남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딜 가자, 어디에서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 참여자 J

"부모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셨는데, 대구는 코로나에 대한 이미지가 공포스러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창동 이 쪽은 술집 열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서울사람들은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다니냐며..."

- 참여자 A

4) 미래 경제와 진로 부분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 참여자도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과 여행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군의 종사자가 무급 휴직 또는 해고 상태가 되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고용률도 줄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거액이 걸린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고. 지금 공부하는 문화예술 직업에서도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분야가 코로나 이후에도 그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2.5단계에서 패닉을 엄청 했고 나라는 인간이 순식간에 단 한 푼도 못 받는 휴직조각이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어간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지..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 과도기 사이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과도기가 끝나면 나는 또 어떤 상황일지 확신이 없어서..”

- 참여자 B

“제 동생은 학생이고 부모님도 퇴직하셨고 저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도 일을 주지 않는 상태에 코로나까지 겹치고... 의욕을 잃은 상태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아무리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축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가끔씩 누군가를 통해 디자인의료가 들어오면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식이고. 아는 사람에게 하다 보니 페이가 많진 않고 고정수입이 없다 보니까 돈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가장 커요.”

- 참여자 A

“한동안 외출을 안 하고 운동 끊고 그것도 안가고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 꿈이나 경력이란 멀어지는 느낌이었고.”

- 참여자 C

“약간의 막막함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계약직이고 11월 말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방과 후 일은 올해 일을 아예 못 했으니까 계약 같은 거는 내년으로 연기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 그러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 참여자 G

“그리고 지금 일자리도 확실히 어떤 분야는 확 줄고 취업?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 참여자 H

4) 혐오가 조성되는 분위기

초창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점을 지적하며 시작된 중국(인) 혐오는 이후 신천지 종교(인) 혐

오, 대구(인) 혐오에 이어 기독교(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노와 혐오가 조성된 분위기를 느낀 참여자들이 있었다.

“처음에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그때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혐오를 하고 차별을 더 가속화시킬까. 걱정이 됐죠.”

- 참여자 E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저는 사람들 심리가 더 안 좋게 변하는 거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때는 현 정부 욕하기도 하고 중국 욕하고. 마스크를 안 쓴 건 잘못이지만 너무 무차별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셔야 되는 걸, 분노해야 하는 걸 (사람들이) 찾는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 참여자 J

2.2.3. 우울감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란 말처럼, 코로나 이후 현 상황은 이전처럼의 생활과 다르게 현저히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껏 살아 온 일상생활을 하지 못함에 있어 큰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무기력증과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1)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느끼는 우울감

참여자들은 외부 생활이 제한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큰 우울함을 느꼈다. 동시에 직장의 일이나 진행할 프로젝트 등이 연기 및 취소됐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처음엔 몰랐는데 우울증?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친구를 못 만나고 답답하다는 거에서. 이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답답함도 계속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 참여자 H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까 또 혼자 자취하고 있다 보니 가끔 밥을 잘 챙겨먹지 않고 있고 속이 안 좋는데 아픈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누가 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참여자 A

“사람을 멀리해서 돈을 안 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을 못 만나는 데에서) 오는 우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조금 더 보태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완벽하게 마비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벌써 두 세 달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도 못 만나고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데 주민들

스스로께서 기피하시는 거죠. 주민 분들이 기피하게 되고. 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업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완전히 회색빛으로 가는 거 같았어요. 이게 나중에 풀렸을 때 이게.. 쏟아지는 걸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 참여자 I

“그걸로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사건들) 인해서 앞으로 사회에 파급력을 불러 일으킬까 불안함이 있는데. 실제로 전광훈 목사 때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9월 말에 행사가 길게 있었거든요. 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그 목사 때문에 다 날아갔죠. 그때는 우울했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뭘 하려고 해도 터지고 안 되고. 예약이 들어와도 또 터지고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파급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 일이 안되면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보니까. ‘왜 나는 뭘 해도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코로나 블루가 왔었던 것 같아요.”

- 참여자 F

2) 무기력증과 무력감

코로나 백신 생성이 내년 안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변수가 많은 문제이며, 현 상황이 2~3년은 계속 될 것이란 학자와 관계자들의 발표 또한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정도의 개인 방역뿐이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단 무력감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우울함이 커질수록 무기력함과 무력감도 커져갔다.

“약간 무력감이 좀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올해가 강사로 4년차가 되는데, 4년차 때 드디어 내가 강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 년마다 계약을 하고 일 년마다 면접을 통해서 학교를 다시 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다섯 개의 학교랑 계약을 맺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학교랑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서 제가 수입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규모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급여가 유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올해를 굉장히 기대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던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예상과 다르게 많이 어그러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뭔가 내가 지금이 딱 날개를 펼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무기력함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 참여자 G

“그렇다고 제가 발악한다 해도 없어질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울하게 2주 동안 누워있던 거 같아요.”

- 참여자 J

“다들 (친구들) 회사-집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다들 분위기가 우울해진.. 다들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아무 탈 없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들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다 있는 느낌이고...”

- 참여자 A

2.2.4. 분노와 열등감

FGI 진행 중 답답함과 불안함, 우울함 외에 분노와 열등감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듣게 되었다. 분노는 특정 대상을 향했으며 열등감은 타인의 모습을 보고 '뒤쳐지고 있다' 느낌을 받을 때 생겨났다.

1) 분노

대체로 분노는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 지역과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하게 된 요인이었던 인천지 종교와 기독교 종교, 전광훈 목사 소속의 사랑제일교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나타났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더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우울감이란 게 (코로나 방역) 단계와 같이 온 것 같아요. 1단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간단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서 좀 '금방 지나가겠지' 우울감이 좀 낮았다 하면, 2단계 때는 활동들에 제약을 받게 되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분노가 쌓이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한된 환경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 분노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도 뭐하긴 하지만요.

2.5단계 갔을 때는 화가 더 치밀었어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축구를 하러 나갔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긴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2주 동안, 길게는 한 달 정도 아무 것도 못한 때가 있었잖아요. 술집도 9시에 문을 닫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모든 시설이 문을 닫고, 국가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 기업들도 다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분노가 넘어서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우울하단 게 진짜 오더라고요."

- 참여자 I

"저도 2.5단계 때 화났어요.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연장 됐을 때 화가 많이 났어요. 일정이 다 미뤄지고 모임도 미뤄지고.. 다 미뤄지다 보니까 정작 그 2주 동안 계획한 것들, 준비했던 것들 다 미뤄지니까 너무 허탈하고 짜증나고. 왜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왜 내가 같이 겪어야 하나, 내가 감내해야 하는 건가 싶고."

- 참여자 J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아니면 국내 여행도 가고 싶은데 계속 못 움직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 참여자 E

"중국에서 터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이게 되게 마음 아파요. 개네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게 조금 화가 많이 나죠 사실."

- 참여자 F

2) 열등감

한 참여자는 인터뷰 중 '남들에 비해 뒤쳐지는 느낌을 받는다.' 라 말하며 '열등감'이라 정의했다. 이에 따라 '뒤쳐진다'는 느낌을 열등감으로 정의했다. 이 열등감은 코로나로 인해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일상,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인생이었죠. 지금은 좀 우울감, 억눌림. 이런 감정이 많은 거 같아요. 실제로 열등감도 있고. 왜냐하면 SNS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SNS에 다른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열등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런 곳에서 우울감을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 참여자 F

"나가니까 잠잠해졌을 때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한강에는 돛자리 칸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좀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저만 꼭꼭 싸매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나태함이 있고 경제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어서 저는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어요. 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면 안 나가야 되는데 이려고 있으면 저만 뒤쳐지는 기분이 드니까 이게 가장 딜레마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 참여자 C

2.2.5. 자극 및 동기부여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시킨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을 '평등한 기회'로 인식하고 무엇이라도 하려는 참여자도 있는 반면, 생계와 직결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최대한 감염 위험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약간 저는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강사 생활 할 때가 더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이러니 하지만, 예전에 강사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약간 형편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조금의 수입이 있으니까 친구 덜 만나고 덜 먹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저는 다르게 지금이 그때보다 자신감이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커진 케이스이긴 해요."

- 참여자 E

"지금은 턱에 걸어요. 바텐더는 항상 테이스팅을 해야 돼서. 이대로 서빙이 가능한지 봐야 돼서 계속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근데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이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코로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저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2.6.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치료와 치유의 관점으로 바라본 참여자가 있었다. 개인의 고통을 편하게 이야기 하고 위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답했다.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건강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고 그걸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연약함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심리 상담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기보다는... 때로는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 인력을 통해 풀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기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참여자 G

2.2.7. 요약 및 정리

코로나 블루를 통해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을 비롯해 분노와 열등감, 무기력과 무력함까지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코로나는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기회이자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구분	세부내용
두려움	1)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의 감염 2)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것 3) 감염으로 인한 격리 과정 예외)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덜 느끼는 유형
불안함	1)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 관련 소식을 들었을 때 2) 가까운 혹은 익숙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외부 공간과 지역에 대한 불안전함 4) 미래 경제와 진로 부분에 대한 불안함
우울함	1)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느끼는 우울함 2) 무기력함과 무력감
분노	-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코로나 확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분노 - 이전 상황처럼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답답함과 분노
열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
자극 및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더라도 해야겠다는 자극 및 동기부여 - 경제활동을 위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함

-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관련 질문을 한 반면, FGI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된 일상생활과 관련한 답변이 많이 나왔다. 참여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코로나19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참여자 중 상당수는 '뒤쳐지고 있다'란 불안감과 열등감을 겪고 있었다. 개인의 경험, 스펙, 자격지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느끼는 '뒤쳐지고 있다'는 특별하게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자기계발 자체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나태하다고 바라보며 자책을 할 경우 마음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경제적 문제가 크게 나타난 참여자에게서 열등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휴직,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 경제적 문제가 생기자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현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당장 정부에서 지원금을 풀어줘도 일시적인 부분이다.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한다는 답변이 많은데, 설문조사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항목에서 자기계발비가 3위를 기록했다. 개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나 무료 및 저비용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진로·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생활과 관련된 자기계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진행한다면 도봉구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2.3. 커뮤니티

코로나19 시국에 청년들은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 즉 신뢰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손꼽고 있다. 즉,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안 및 위기의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기반의 커뮤니티가 약해진 지금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코로나 19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코로나 19시대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3.1. 오프라인 커뮤니티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친구, 지인, 모임 등이 있었고 이들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인간관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시기도 있었다. 도봉구의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간관계의 유지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었다.

1-1) 만남 횟수의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친구 및 지인, 더 나아가 가족과도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만나더라도 예전보다 더 짧게 만나고 헤어지거나, 코로나 이후에 만나자는 연락으로 만남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외출 자체를 줄여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만나는 횟수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 게, 도봉구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어느 정도 단계가 하향되고 나면 그때 만나서 회포 풀자.’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확실히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만나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던가, 술자리를 가져도 길어봐야 2차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인이랑 가족을 만나는 빈도도 줄었어요. 본가가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들렀는데, 괜히 제가 무증상감염자여서 어르신들을 감염시킨다던지 하면 안 되니까 만나는 횟수가 일주일에 3~4번에서 1~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어요..”

- 참여자 1

“친구들을 분기별로 한 두 번씩 만났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로는 못 만난 지 꽤 됐어요. 전화나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고요. 가족 모임도 줄어서 이번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서 각자 집에서 보낼 예정이에요.”

- 참여자 C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일주일에 2-3번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오는 공허감이 커요.”

- 참여자 A

“제 친구들은 애기엄마들이 많거든요. 어린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은 걱정이나 염려가 크더라고요. 그저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작년 말에 아이를 낳아서 밖에 나온 횟수가 다섯 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죠.”

- 참여자 G

1-2) 만남장소의 제한

친구 및 지인을 만나는 장소도 외부로 공개된 곳 보다는 지인들끼리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만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서 만날 때는 음식점에 가기보다는 누구의 집이나 누구 사무실 같이 저녁 되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먹고 정리하고 나오자는 식의 만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끼리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 참여자 J

“정말 가끔씩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으면 가까이 사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밥을 먹는 정도예요.”

- 참여자 A

1-3) 연락으로 대체되는 만남

기존에 만나던 지인 및 친구와 만남보다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게는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자취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가족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좀 늘었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요.”

- 참여자 D

“원래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많이 해요. 새로운 모임보다는 곁에 있었는데 소홀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코로나 때문에 괜찮냐고 안부도 묻고. 이런 식으로 연락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 참여자 C

“정말 가끔 친구가 보고 싶거나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요. 갑자기 전화를 하면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하는데 카톡같은 메신저 말고, 대화가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죠.”

- 참여자 A

“많이 만날 수가 없게 되다보니 카톡이나 페이스톡같이 모바일위주로 이용해서 연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연락이 줄어들고, 친한데도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 참여자 H

1-4) 만남의 지역 한정

같은 지역구 내에 사는 친구나 지인을 위주로 만나고, 다른 구에 사는 친구들과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년간 살아서 도봉구 친구나 지인들이 좀 있고 다들 이사를 가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도봉구 지인들만 만나는 편이에요. 다른 구에 사는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관악구에 친한 형이 있는데 관악구에 확진자가 많아서 서로 위험하니까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했었고.”

- 참여자 J

“저도 도봉구나 노원 쪽 빼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끼리는 예전처럼 만나면 위험하니까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 참여자 H

1-5)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기존에는 친구를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제한되자 오히려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다는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본인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친구를 자주 만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람을 생각보다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냈는데, 2.5단계 터지기 직전부터는 친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저에게 가져온 큰 변화일 수 있겠구나 했어요. 제가 가진 인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카톡이나 통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 둘 걸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중력시대나 포털사이트를 돌아다녀보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는 걸로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을 시작으로 다른 곳도 갈 예정인데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참여자 B

2) 온라인으로 대체된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모임방법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상회의로 대체된 모임으로는 교회 예배, 강의, 정기적으로 모이던 지인모임 등이 있었고, 온라인 대체 시 집에서 편안하게 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오프라인이었으면 금방 끝났을 논의도 길어지게 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2-1)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임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모임들 중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은 교회예배, 강좌, 학교과제를 위한 모임, 지인모임 등으로 나타났다.

“교회친구들과 하는 목상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어요.”

- 참여자 G

“학교에서 수업 같은 거 하면 팀플도 다 만나서 했는데 요즘에는 줌이나 카톡이나 다른 디지털로 대체하고 있어요.”

- 참여자 H

“디스 코드라는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만나서 게임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 참여자 F

“한 달에 세 번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2.5단계가 되었을 때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했어요.”

- 참여자 E

“취업준비를 위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어요.”

- 참여자 B

“유튜브나 SNS같은 온라인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회의 같은 것을 진행했고 교육을 할 때도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 참여자 I

2-2) 온라인으로 대체된 모임의 장점

온라인으로 대체된 모임의 장점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집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줌으로 만나는데 실제로 모이는 거랑은 다르지만 아는 사람들끼리 소식을 주고받는다는 의미

에서는 좋아요.”

- 참여자 A

“온라인으로 게임진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게임 진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고요.”

- 참여자 F

“좋은 점은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 참여자 E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실시간 예배인데 자율적으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 참여자 G

2-3) 온라인으로 대체된 모임의 단점

온라인 회상회의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자주 끊기고 참여자들이 집중도나 표정 등의 감정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각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할 의사소통인데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면서 지체된다는 점을 꼽았다.

“줌의 불편한 점은 40분마다 끊기고, 화면이나 마이크를 끈 참여자들이 잘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점이에요.”

- 참여자 A

“저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이거든요. 줌이라는 게 집중도 안 되고 저랑 안 맞는 방식이어서 다소 힘들어요.”

- 참여자 B

“온라인 모임으로 바뀌다보니까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캠으로 얼굴을 보고 그러면 미세한 표정의 변화 같은 걸 잡아내기가 힘들고 보이스가 겹칠 때가 있어서 한 번에 한 명씩 말해야 되는데, 만나서 하면 금방 끝날 이야기인데도 온라인으로 해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 같아요.”

- 참여자 D

“안 좋은 점은 확실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전달도 잘 안되고 오디오도 겹치고 인터넷환경이 안 좋거나 마이크 사용이 미숙하거나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확실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 참여자 E

“줌을 사용해봤는데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줌으로 하면 말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디오가 물리면 피곤해지고 잘 안 들리니까요. 또 컴퓨터가 끊기거나 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 둘이서만 하는 거면

괜찮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 참여자 J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만나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대응도 좀 늦다보니깐 더 신경 써야 돼서 피로감이 쌓인 것 같아요.”

- 참여자 I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생각들을 예배 후에 나누기도 해서 같은 주제여도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게 가장 아쉬워요.”

- 참여자 G

3)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힘이 되는 사람

3-1) 친구

코로나 19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존재로 친구를 선택한 이유로는 서로의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해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 적절한 정보 제공

“친구가 청년구직활동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런 시기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구직정보들이라도 많이 알고 있어야 버틸 수 있지 않겠냐면서 정보공유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교회 모임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동갑이라서 취직준비에서 직장인이 되는 과정을 같이 겪었고, 교회와 연관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 참여자 A

유형2.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친한 사람들과 모임 가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룹이랑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는 그룹이 있어서 그런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래요.”

- 참여자 E

유형3.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신뢰 관계

“같이 선교 다녀와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그룹이 있는데요, 최근 자취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그룹 안의 언니가 배달을 대신 시켜주거나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하는 식의 도움을 줬고, 서로서로 신경을 써줬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그 그룹이 제일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 참여자 G

3-2) 애인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애인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도 나타났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일 큰 힘이 되었어요. 다들 여행사 비전이 없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만 제가 확신이 있다면 붙잡으라고 말해주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 참여자 C

“저도 남자친구가 같은 처지에 있어서 서로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의지가 되었어요. 가까이에서는 남자친구가 많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다른 걸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은 힘을 줬어요.”

- 참여자 A

3-3) 유사 직군 동료

현재 자신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유사직군의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직업 및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경우 같은 직군의 동료와는 자세한 설명 없이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은 문화예술쪽을 잘 모르니까 저랑 비슷한 직업군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참여자 F

“저도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 참여자 D

3-4) 정부

정부가 코로나시기를 이겨내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저에게 청년수당을 주고 있는 정부한테 제일 고맙죠. 저는 해외거주가 목적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방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해외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 나라의 방역이나 이주노동자로서의 대책이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해외에 나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참여자 B

2.3.2.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정도

코로나생활방역 지침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해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정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인터뷰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영상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중고제품 관련 사이트 등의 이용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교육 등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소통하는 경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증대

소셜 미디어와 대학생 커뮤니티, 그 외 영상플랫폼의 이용수준이 증가되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같은 영상플랫폼을 구독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흐름을 잘 탄 것 같아요.”

- 참여자 J

“대학생들 많이 하는 애브리타임 사용이 늘었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SNS도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괜히 하게 돼요.”

- 참여자 H

2)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경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대면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요가가 취미가 되었는데, 유명한 요가강사님들은 오프라인강의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운동에 진지한 사람도 많고 동작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굴을 몰라도 같이 농담도 하게 되고요.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 참여자 C

“저는 평소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온라인글쓰기모임을 신청했어요.”

- 참여자 A

3) 중고제품 판매 사이트 이용 증가

“당근마켓. 필요한 물품들을 검색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판매하려고 해요.”

- 참여자 E

“마술용품 중고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장비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당근마켓에서 촬영 장비들의 수요가 되게 높은데, 다들 온라인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국이 이렇다보니 유튜브로 전향하고 있는 거죠.”

- 참여자 F

4) 커뮤니티 이용 감소

“저는 제가 준비하는 업계 관련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들을 봤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보보다는 물품판매 글이 더 많아져서 커뮤니티에 잘 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들어가 봤자 판매 글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참여자 D

2.3.3. 공간

코로나로 인해 공간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집과 외부 공간에 대한 인식 및 이용변화가 초래되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간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1)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집을 휴식처로 느끼게 되었고, 집을 꾸미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집에 안 붙어있는 스타일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갈 곳은 집 밖에 없어서 왓차나 넷플릭스로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면서 공간의 전환이 되었어요. 예전에 집이 잠만 자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휴식처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 참여자 C

“집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터 같은 걸 많이 사두었는데 방치해두고 있다가 그걸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 참여자 A

2) 공간 방문의 제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평소 방문하던 영화관이나 핫플레이스, 전시회 같은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 국내 장소의 제한

“핫플레이스에 가고 싶어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영화관에서 음식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도 자주 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콘서트에 못 가는 것도 아쉬워요.”

- 참여자 G

“저는 작은 서점이나 전시회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데에 일체 가지 못하게 된 케이스예요.”

- 참여자 A

유형2. 해외여행의 제한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가서 아쉬워요.”

- 참여자 F

“태국을 좋아해서 2년에 한 번씩은 나갔는데 못가서 아쉬워요. 그리고 동네에 찍어둔 맛집이 있는데 요즘 식당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워 못가는 중이라 아쉬워요.”

- 참여자 E

“해외 쪽에 못 가게 되어서 아쉽죠.”

- 참여자 D

3)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휴관으로 겪은 어려움

인터뷰참여자 들 중 공공기관 휴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할 때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를 못 구해서 촬영을 캔슬한 적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관할 곳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자 J

“저는 직장에서 공간을 대관하는 실무를 맡고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 대관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다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다른 공간을 얻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런데 도봉구에 갈만한 곳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기업이 운영하는 공간의 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비용도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에 저렴하지 않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 참여자 I

“옛날에는 도서관 같은 학교공간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닫고 시간도 제한되다보니 이용을 잘 못하게 되었고, 무중력지대 도봉 같은 곳도 열었는데 요즘에 닫게 되면서 못가고 있어요.”

- 참여자 H

“공공기관은 단계별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계 별로 완화조건이나 충족고건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하거나, 건물 규모에 따라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는 몇 명 이상 못 들어간다 하는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똑같은 기

준 하나로 획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혼선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 참여자 I

2.3.4. 지역기반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일부 장애물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 참여 가능한 수업에 대해 홍보 및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욕구

지역 내에서 친구를 만들거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네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성향 등이 맞지 않으면 일회적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특정한 직업군 등으로 모집되는 커뮤니티라면 직업적 공통점이 있으므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감대가 맞거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 동네 친구 모임

“저는 가끔 혼자 있기 심심할 때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동네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동네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친구요. 그리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 참여자 E

“저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감대가 맞지 않으면 아마 한 번 나가고 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 참여자 D

“저도 성향이 다르면 모임을 지속적으로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있다면 나가볼 것 같아요. 동네에 술 한 잔 할 친구가 없어서 매번 멀리 나가야되거든요.”

- 참여자 F

“저는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나랑 좋아하는 분야가 같거나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도 오게 되었고. 지금도 시간만 되면 강의 같은 것들을 신청하고 있어요.”

- 참여자 B

유형2. 특정 직업군 분야 기반의 모임

“문화예술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공연자들끼리 콜라보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 참여자 F

2) 지역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참여의향 및 장벽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대부분 지역 내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서류를 작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렇다보니 지원 사업의 모임은 숙제를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을 만들면 책임을 지거나 진행해야 하는데 굳이 내 자신이 하고 싶지는 않고, 편안하게 만나고 싶은데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아요. 가령 어느 단체가 스터디 모임의 비용이나 공간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1년간 진행하다 치면, 각자 삶이 바쁘데도 모임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영수증을 모으고 하잖아요. 그냥 다 같이 더치페이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땡 끝내는 게 낫지 어디 단체 끼서 하면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는 거라면 모임에 참여할 의향도 있고 지원사업도 할 의향이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더 편안한 모임활동을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 참여자 J

"투입된 자본에 비해서 결과물이 많아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미션같이 뭔가 해야 할 것이 주어지고 결과물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청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참여자 I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물을 내야하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팀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참여자 H

3) 지역 기반의 강의프로그램/지원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조건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에서 청년들을 위한 강의나 모임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참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했고, 대부분 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고 모임참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보가 더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유형1. 홍보 필요

"저는 도봉구에서 청년활동을 하는데 관련 홍보가 자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한정되어있어요. 홍보가 잘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에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 참여자 A

"제가 무중력지대나 청년 포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자기계발에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 참여자 B

“정부보다 빠르게 청년들의 문제를 캐치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저희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고 신청이 늦으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홍보가 더 잘되면 좋겠고, 처음 하는 사람들도 겁먹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정보가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 참여자 C

유형2. 모임에 대한 상세 안내

“저는 무중력지대나 청년포탈의 프로그램들의 제목만 보고 신청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 않아서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정보, 가령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인다는 예시를 주거나, 모임의 규칙들을 명시해주면 좋겠어요. 가령 모임 이후에 개인적인 연락은 금지한다든가 단독방에서만 말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규칙들이요.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다면 더 빨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에 이 모임에는 이런 성별과 이런 지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만나는구나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 참여자 B

“저도 무중력지대는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참여하는지를 몰라서,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신청을 머뭇거리게 되었어요.”

- 참여자 C

2.3.5. 요약 및 결론

-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시대에 도봉구청년들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대면 모임 및 커뮤니티는 만남의 횟수나 장소가 제한되었고, 그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인은 친구, 애인, 동료, 정부 등으로 구직정보 및 정신적 지지, 현물적인 도움 등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인식이 코로나 극복에 일정 수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사람을 더 만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는 응답 및 지인과 가족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에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데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 공통점을 중심으로 조직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동네친구가 생기는 것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 커뮤니티지원사업도 과도한 책임이나 결과물은 부담이 되지만, 일단 시작해 볼 의향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기반으로 구성되는 자기계발 혹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조직되는 모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빨리 참여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데 망설이게

되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고, 모임의 규칙이 상세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추후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을 위한 모임을 조직할 때, 취향이나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의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겼고, 각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인간관계 혹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 인터뷰 : 연구자의 말

시시껄렁한 이야기

성보경 공동연구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연초, 그리고 봄. 나는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주변에 걸린 사람 없이 흥흥한 소문만 돌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는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었다. 코로나 덕분에 시위, 워크숍, 캠페인, 회의 등 예정되어있던 스케줄이 무산되고 연기되었다.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심각지는 코로나 덕분에 계획이란 것을 세울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갔다. 그러던 중에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지역 내에서 공동체의 형태로 관계를 유지해오던 집단들이 코로나시기를 훨씬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에겐 생경한 이야기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에는 앞집, 뒷집, 아랫집 모두 인사를 하고 지내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놀기도 했지만 그 이후 내 기억 속에서 지역 공동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즉,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건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럴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생협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를 자주 접했고, 그 분들이 사무국으로 살뜰히 챙겨주시는 반찬이나 안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럼 청년은 어떨까? 궁금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기업들 덕에 장기화된 취업준비, 실직 혹은 무급휴직으로 심화되는 경제적 어려움, 높아져가는 자살률 등 뉴스에서 보이는 수치 말고,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자취를 하면서 이웃과 왕래하지 않는 청년의 고통은 더욱 심각할까? 친구가 많은 것이, 혹은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것이 코로나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될까? 연결되어있다는 감각이 위험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보고서에... 우리들의 예측은 맞기도 했고,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놀라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청년의 층위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들 내의 경험과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고, 매우 뜻 깊었다.

개인적으로 연구를 끝내면서, 떠올랐던 순간이 있다.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였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로움과 그리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어두운 밤거리를 걸을 때, 내가 사는 지역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면부지의 외국인이 끈질기게 따라오며 말을 걸 때, 나는 내가 당장 없어져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나의 소멸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의 인간관계는 풍부한 정보, 생활상의 도움, 정신적 지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이기도 했다. 어쩌면 코로나시대의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적 자본, 인간관계 등으로 일컫어지는 모든 것

은 안전망의 형태로 개인을 지탱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은 얼마든지 더 닥쳐올 거라고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이변, 또 다른 인수공통감염의 전염병, 꺼지지 않는 산불과 삼시간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메뚜기 떼 등등.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재난들이 우리를 다시 주저앉히고 낙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누구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듬는 것.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 변화를 지연시키고 다시 이 지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있는 분업의 구조를 없애고, 지역기반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가는 것. 지금, 이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실천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무미건조한 무채색의 공간에 이렇게 생생하고 컬러풀한 사람들이 숨어있었다니, 몰랐습니다!(슬릭st..) 함께 연구를 진행한 동료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며 만난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조사에 참여해주었던 청년들에게 고마웠고, 그들 모두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고 엮히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동네에서 연구를 수행해내는 기쁨을 꼭 맛보았으면 한다.

V. 결론

1. 결론
2. 제안
3. 연구의 한계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문제 현황과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문제 극복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 설문조사 결과, 도봉구 청년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수입이 감소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문화생활비와 식비 위주의 소비를 줄이고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향후 미래 경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대다수 도봉구 청년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전파 가능성, 격리치료,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우울감과 일상의 흥미가 감소했으며 초조함과 불안함이 증가했다. 도봉구 청년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소통하고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SNS와 의사소통 어플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없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도봉구 커뮤니티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집단인터뷰(FGI) 결과,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 타격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형태를 띠고 있는 청년은 경제적 여파를 더욱 크게 느꼈다.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우울함과 불안감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동종 업계 청년과의 비교를 통해 '뒤쳐지고 있다'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일상생활의 중단과 코로나 확산에 강한 분노감을 느끼는 청년도 존재했다. 커뮤니티 활용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기존 커뮤니티가 취소 감소, 장소 제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도움을 받는 커뮤니티로는 가족, 친구집단, 동종업계 동료 등으로 일상적 소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보를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집단이 선호되었다. 인터뷰 참여자 중 대다수는 도봉구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임의 규칙, 구성원, 성향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가 청년의 삶에 미친 영향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집단인터뷰 참여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며,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고 더 많은 수입을 벌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일부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과 수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으며 창업, 1인 기업, 유튜버, 새로운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이전보다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됨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도봉구 청년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지만 동시에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집단인터뷰 과정 중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참여자 B는 집단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이라던 참여자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혼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청년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교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친구를 자주 만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람을 생각보다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냈는데, 2.5단계 터지기 직전부터는 친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저에게 가져온 큰 변화일 수 있겠구나 했어요. (중략)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는 걸로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을 시작으로 다른 곳도 갈 예정인데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참여자 B

2. 제안

1)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치구 차원의 경제적 지원

- 연구 진행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도봉구 청년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바탕인 상황에서 청년은 급작스러운 수입의 감소와 생계를 위한 지출 감소를 경험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국가 단위 또는 서울시 단위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봉구의 경제적 지원 정책이 있다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커뮤니티 사업

- 도봉구 청년 중 자신이 처한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라도 최소한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힘든 감정을 해소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의 관심사 또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동네 커뮤니티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도봉구청, 무중력시대 도봉 등의 기관에서 비슷한 관심사와 주제를 중심으로 6~8회 만나는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기 망설여지는 주요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르고, 모임의 규칙이 상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수행 시 모임에 대한 정확한 운영 가이드라인과 참여자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홍보와 모집 단계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제안한다.

3) 도봉구 청년 심리 건강 실태조사

- 설문조사 문항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솔직히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하루 아침에 실직하고 난 뒤, 당장 나갈 대출금도 못 갚아 추심에 시달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통제가 안 돼 신경외과에 가 진찰을 받아도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모집하는 일자리도 나이제한(보통 34세 이하)에 자격증 혹은 특정 경력 위주라 큰 도움을 받기 어렵고, 구직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기존 연봉에 50퍼센트 밖에 안 되는 자리만 있어 빚쟁이 신세를 면할 길이 없네요.

그저 모든 것에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을 담은 기사, 뉴스 등을 보면서 '그래..나만 힘들다 생각하지말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상황과 생각들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노력중입니다.”

- 응답에는 도봉구 청년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또는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발견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도봉구 청년 심리 건강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조사를 통해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기존 사회복지체계와 연결시키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도봉구 청년에게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한계

3.1.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FGI) 한계

-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141명, 집단인터뷰(FGI)는 10명으로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도봉구 청년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 FGI 설문지를 구성할 때 고도로 구조화된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의 타당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 FGI 참여자 명단을 구성할 때 응답자 특성별로 명확하게 그룹을 짓지 못했다. 이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참여자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3.2. 기타

-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 중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에서 '지속성'을 추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FGI 진행 후 나온 연구팀 내부 의견으로, 도봉구 청년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에 '일회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정의에 '지속성' 혹은 '일회성'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도봉구 청년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중을 오프라인 커뮤니티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설문조사와 인터뷰 진행 결과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원들의 사전 예측과 다른 결과였다.

VI. 부록

1. 참고자료
2. 설문조사지
3. 집단인터뷰(FGI) 질문지

1. 참고자료

1) 논문 및 연구 자료

전신현 (2003), "지역특성이 성인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사회과학 제13집, pp.113~134

조영임 (2017),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사회적 교류 영향구조 연구 :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Hillery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al, vol. 20(2):111-123.

2) 뉴스 자료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또 최대...'청년'들은 읍니다", 머니투데이, 2020.08.10.

"코로나禍 고용 한파 현실화, '일자리 보릿고개'에 허덕이는 청년들", 한국대학신문, 2020.08.03.

"코로나 습격에 쓰러지는 청년들...희망 위기가 온다", 프레시안, 2020.07.01.

"쿠바의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 0m'의 쾌거..."이웃간 볼키스를 멈추세요", 프레시안, 2020.08.10.

2. 설문조사지 (※ 종이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함)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위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봉구에서 거주, 노동, 공부,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문결과는 발간 예정인 무중력시대 도봉 연구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구진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신 분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5천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 수집된 전화번호는 커피쿠폰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관해 집단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김태환(청년인정협동조합), taehwan0118@naver.com

1.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 부탁드립니다. (11문항)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하기'와 같이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 간 일정거리 유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최근 6개월 이내에 일자리 또는 정기적인 수입을 잃었다. *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1-2)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① 예		② 아니오	
1-3) 최근 6개월 이내에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었다.	① 예		② 아니오	
1-4)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정부지원'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난지원금, 복지 및 상담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① 정부지원 ② 대출 ③ 신용카드 ④ 가족과 지인의 도움 ⑤ 저축금 사용 ⑥ 없음 ⑦ 기타 (_____)				
2)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2-1)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① 식비 ② 교통비 ③ 경조사비 ④ 문화생활비 ⑤ 자기계발비 ⑥ 저축비 ⑦ 병원비 ⑧ 기타 (_____)				

3) 미래 발생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2)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3)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4)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 부탁드립니다. (12문항)

1)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두려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 다	조금 아니 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어서 두렵다.	①	②	③	④
1-2)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1-3)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된 이후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서 두렵다.	①	②	③	④
1-4)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된 이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1-5)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된 이후에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불안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2-1) 초조함 또는 불안함이 있다.	①	②	③	④
2-2) 걱정을 조절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2-3) 짜증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3)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우울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3-1) 우울감이 증가하여 흥미와 즐거움이 낮아졌다.	①	②	③	④
3-2) 수면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3-3) 식욕 저하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3-4)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티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 부탁드립니다. (3문항)

커뮤니티는 ① 일정한 지리적 또는 가상의 영역 안에서 ② 공동의 관심사와 유대를 바탕으로 ③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 모임 등이 있습니다.

- 1) 나는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2)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중복선택 가능)
- ① 가족 ② 친구 또는 지인 또는 애인 ③ 학교 ④ 직장 ⑤ 종교모임
⑥ 동호회 또는 취미모임 ⑦ 학습 또는 강좌 모임 ⑧ 없음 ⑨ 기타(_____)
- 3) 도움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① 의사소통 어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
(중복선택 가능) ②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③ 익명 커뮤니티 (카페, 어플, 익명 게시판 등)
④ 온라인 모임 (웨비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취미 모임)
⑤ 없음 ⑥ 기타(_____)

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주관식)

5.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기본정보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법적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 2) 태어난 연도 _ _ _ _ 년
- 3) 거주지 ① 창동 ② 방학동 ③ 도봉동
④ 쌍문동 ⑤ 도봉구 외 지역(_____)
- 4) 주요 활동지 ① 창동 ② 방학동 ③ 도봉동
④ 쌍문동 ⑤ 도봉구 외 지역(_____)
- 5) 가구형태 ① 1인 독립가구 ② 2인 이상 동거가구
③ 원가족과 거주하는 가구 ④ 기타(_____)
- 6) 거주형태 ① 월세 ② 전세 ③ 자가
- 7) 월 평균 개인소득 ① 없음 ② 1원 이상-50만 원 미만 ③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④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⑤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⑥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⑦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⑧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 ⑨ 35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⑩ 400만 원 이상

6.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번호와 집단인터뷰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 1) 커피교환권 발송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세요. _ _ _ - _ _ _ - _ _ _ _
- * 전화번호는 커피 교환권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 2) 연구 FGI(집단인터뷰) 참여를 희망하시나요? ① 네 ② 아니오
- *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관해 집단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은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네 ② 아니오
1.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
- 커피 교환권 발송
 - 연구FGI(집단인터뷰) 참여 섭외 (*희망자 해당)
2. 수집항목
- 휴대전화 번호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연구 완료 시점까지 (2020.12.31.)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집단인터뷰(FGI) 질문지

범주 1	범주 2	질문
인트로	간단한 자기소개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및 동거 형태, 취미 및 근황)
	말문트기	- 어떻게 저희 연구조사를 알게 되셨나요? -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떤 곳인가요? - 요즘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나요? - 이 동네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코로나	근황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지금 가장 답답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일상이 있다면? -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세요? - 최근에 집 밖을 나왔던 적이 언제인가요?
	코로나에 대한 인식	- 코로나에 대해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본인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로 변한 삶	-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에 자기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 (교우관계/ 문화생활/ 운동/ 쇼핑/ 장소 이용 등)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나요? - 본인의 주변인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어떤 반응/삶의 변화 및 타격을 겪고 있나요?
경제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나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부양정책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소비	- 코로나19 이후 소비를 즐기고 계신가요? 어떤 항목에서 주로 즐기고 계신가요?
	수입	- 현재 주로 수입을 어떻게 얻고 있나요?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수입이 어떻게 변했나요?
	미래 경제 계획	- 앞으로 소비나 수입 관련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심리적 문제	두려움	- 코로나 감염에 대해 어느 정도로 걱정되나요? - 주변인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은 어떠한가요? - 안전하게 지내려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나요? -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10점 만점에 몇 점?
	불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나요? - 불안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요즘 느끼는 불안감은 10점 만점에 몇 점?
	우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이후로 본인의 감정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 최근 가장 우울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우울한가요? -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주로 어떻게 극복하나요? - 우울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나요? - 요즘 느끼는 우울함은 10점 만점에 몇 점?
커뮤니티	오프라인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는 분들 혹은 모임 중에 가장 힘이 되거나 의지할 수 있는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 지인 외에 다른 취미나 가치관 기반의 모임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의나 독서모임, 종교모임) - 동네에서 지역기반으로 형성된 모임에 참여하시나요? 혹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 동네(도봉구)에서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에 친한 사람(친구,가족,지인)을 만나는 횟수를 비교한다면? - 원래 참여하고 있던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공개하실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루에 몇 시간정도 이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코로나 19 이후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재 가지 못해서 가장 아쉬운 공간은 어디인가요? - 요즘 가장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마무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커뮤니티 이용이나 생활적 측면에서 변화가 지속될 것 같은 영역이 있나요? -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생긴 극복방법이나 대처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코로나19로 인한 도봉구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펴낸날 2020년 11월 15일

지 원 무중력지대 도봉 '청년정거장 3기' 지원사업

펴낸곳 청년인정협동조합

연구원 김태환, 김나은, 성보경, 안혜림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ungnyun.ok

홈페이지 <https://injeong.tistory.com/>

인 쇄 다운인쇄



이 저작물은 CC라이선스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